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주 은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전통색채를 활용한
한국의 전통회화 감상지도 방안 연구
- 오방색을 중심으로 -

2013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김진영

전통색채를 활용한
한국의 전통회화 감상지도 방안 연구
- 오방색을 중심으로 -

이 주 은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김진영

인 준 서

김진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세계화, 다문화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수많은 매체들을 통하여 여러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수용하며 살아가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이러한 다양한 문화를 대면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정체성, 분별력을 가지고 문화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전통미술 감상교육은 우리의 정서와 사상을 이해하고 우리의 주체성을 분명히 하여 올바른 미의식을 가지고 문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통미술이 청소년들에게 지루하고 고리타분한 역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활모습과 의식세계를 이해하고, 보존하며, 계승해야 할 중요한 문화유산임을 느끼게 해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통회화에는 한국인의 종교와 사상, 시대적 배경에 따른 미의식이 나타나 있다. 특히 회화에 있어서 색채는 시각적 이미지와 느낌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민간신앙과 유교적 사고방식을 기반으로 한 상징적 의미의 색들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서양회화의 색채 사용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오랜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색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색이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작용을 하고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하는 색채의 역할은 문화를 형성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아도 발해, 고구려시대의 고분벽화에서 다채로운 색상으로 그려진 수렵도나 무용도 그리고 백호, 청룡, 주작, 현무의 사신도가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오래전 선사시대부터 우리민족의 색채문화가 형성되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의 색채의식은 음양오행사상에 근거한 오방색을 사용하여 의, 식, 주에 있어서 모든 생활면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오방색의 색채문화가 우

리의 전통과 한국의 고유미를 나타내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점점 현대화, 산업화, 다문화 되어가는 시대에 살아가면서 전통을 보존, 계승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전통에 대한 이해와 애착, 자긍심은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오방색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상징성, 선조들의 의식 세계를 이해하여 전통회화 감상에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전통회화를 오방색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 전통회화 감상지도 방안 연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제 1장 서론에서는 오방색을 중심으로 한 한국 전통회화 감상지도 방안 연구의 목적과 중요성, 내용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 2장에서는 미술 감상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적의의 그리고 미술 감상교육의 접근방법에 대해 문헌자료를 통해 알아보았다.

제 3장에서는 전통회화 감상교육의 필요성과 전통회화 감상교육의 실태를 설문문을 통하여 조사하였고, 그에 따른 전통회화 감상 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 4장에서는 전통회화 감상에 있어서 색채를 중심으로 한 오방색에 대해 살펴보았다. 오방색의 이론적 배경으로 음양오행설의 개념과 음양오행설에서 나타난 오방색에 대해 알아보고, 오방색의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또한 전통회화에 오방색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알아보고, 전통의 계승으로서 현대회화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전통색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오방색 인지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 5장에서는 감상지도 방안에서 오방색을 활용하여 한국 전통회화를 어떠한 방법으로 이해하고 감상할 것인지 활용 방법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교수-학습 지도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전통회화 감상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기회

가 되며, 청소년들이 한국의 전통적 색채의식과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여 전통 회화에 대한 흥미를 갖고, 전통회화의 특수성과 전통성의 가치를 인식하는 기회가 되어 전통을 바르게 확립할 수 있는 지도 방안이 되길 기대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점	3
II. 이론적 배경	4
1. 미술 감상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적의의	4
2. 미술 감상교육의 접근방법	6
III. 중학교 미술교육에서 한국 전통회화 감상교육 현황	9
1. 전통회화 감상교육의 필요성	9
2. 전통회화 감상 실태 조사	11
1) 연구 방법	11
2) 항목별 분석내용	12
3) 분석결과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23
IV. 오방색을 활용한 전통회화 감상 방안 고찰	26
1. 오방색의 이론적 배경	26
1) 음양오행설의 개념	26
2) 음양오행설에 의한 오방색	29
3) 오방색의 상징적 의미	34

2. 전통회화작품에 나타난 오방색	37
3. 전통의 계승으로서 현대 회화작품에 나타난 오방색 분석	49
4.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오방색 인지도 조사	55
1) 연구 방법	55
2) 항목별 분석내용	56
3) 분석 결과	61
V. 오방색을 통한 한국 전통회화 감상지도 방안	63
1. 오방색을 통한 한국 전통회화 감상교육 방법 제시	63
2. 본시 학습 지도안	66
VI. 결론 및 제언	85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전통회화 감상수업 실태 (설문지-문항 1)	12
<표 2> 전통회화 감상수업 실태 (설문지-문항 2)	13
<표 3> 전통회화 감상수업 실태 (설문지-문항 3)	14
<표 4> 전통회화 감상수업 실태 (설문지-문항 4)	15
<표 5> 전통회화 감상수업 실태 (설문지-문항 5)	16
<표 6> 전통회화 감상수업 실태 (설문지-문항 6)	17
<표 7> 전통회화 감상수업 실태 (설문지-문항 7)	18
<표 8> 전통회화 감상수업 실태 (설문지-문항 8)	19
<표 9> 전통회화 감상수업 실태 (설문지-문항 9)	20
<표 10> 전통회화 감상수업 실태 (설문지-문항 10)	21
<표 11> 전통회화 감상수업 실태 (설문지-문항 11)	22
<표 12> 오행 소속 알림표	28
<표 13> 오방색의 상징성	34
<표 14> 오방색 인지도 조사 (설문지-문항 1)	56
<표 15> 오방색 인지도 조사 (설문지-문항 2)	57
<표 16> 오방색 인지도 조사 (설문지-문항 3)	58
<표 17> 오방색 인지도 조사 (설문지-문항 4)	59
<표 18> 오방색 인지도 조사 (설문지-문항 5)	60
<표 19> 오방색 인지도 조사 (설문지-문항 1)	60
<표 20> 전통회화 감상교육 방안 내용	63
<표 21> 지도상의 학습효과 내용	67
<표 22> 1차시 본시학습지도안	68
<표 23> 2차시 본시학습지도안	79
<표 24> 3차시 본시학습지도안	81

도 판 목 차

〈그림 1〉 음양오행 순환구조	27
〈그림 2〉 오방정색과 오방간색	30
〈그림 3〉 강서중묘 청룡도	32
〈그림 4〉 강서중묘 백호도	32
〈그림 5〉 강서중묘 현무도	32
〈그림 6〉 강서중묘 주작도	32
〈그림 7〉 안악3호분 묘주인상	38
〈그림 8〉 안악3호분 묘주부인상	38
〈그림 9〉 안악 3호분 부월수	39
〈그림 10〉 안악 3호분 행렬도	39
〈그림 11〉 안악 3호분 부역	40
〈그림 12〉 안악 3호분 차고	40
〈그림 13〉 무용총 무용도	41
〈그림 14〉 무용총 수렵도	41
〈그림 15〉 환경변상서품, 113x150.5cm, 일본 서복사	42
〈그림 16〉 아미타여래도, 105x205.5cm, 일본 시마즈가	42
〈그림 17〉 지장보살도, 239x130cm, 일본 가마쿠라시 엔가쿠사	43
〈그림 18〉 수월관음도, 227.9x125.3cm, 일본 교토 대덕사	43
〈그림 19〉 필자미상, 화조도 8폭 병풍, 110x31.3cm, 일본고려미술관	45
〈그림 20〉 공계, 39x45cm	45
〈그림 21〉 황계도, 112x327cm, 에밀레박물관	45
〈그림 22〉 필자미상, 십장생도, 151x370.7cm, 삼성리움미술관	46
〈그림 23〉 필자미상, 모란도, 174x47.5cm, 호암미술관	47
〈그림 24〉 문자도, 49x30cm, 홍익대학교박물관	48

<그림 25> 장한중, 책가도, 195x361cm, 경기도박물관	48
<그림 26> 이형록, 책가도, 47x140cm, 호암미술관	48
<그림 27> 박생광, 무속, 136x132.5cm, 국립현대미술관	50
<그림 28> 박생광, 무당, 130x70cm, 국립현대미술관	50
<그림 29> 민경갑, 산울림 95-5, 210x575cm, 국립현대미술관	51
<그림 30> 이종상, 원형상-그밖에, 75x75cm, 일랑미술관	51
<그림 31> 이종상, 원형상-흙에서, 57x57cm, 일랑미술관	51
<그림 32> 엄옥경, Go into the scent, 72.7x60.6cm	52
<그림 33> 엄옥경, Go into the scent, 72.7x60.6cm	52
<그림 34> 김득환, 합(합) I, 400x400x22mm	53
<그림 35> 김득환, 합(합) II, 400x400x22mm	53
<그림 36> 김득환, 합(합) III, 400x400x22mm	53
<그림 37> 김득환, 합(합) IV, 400x400x22mm	53
<그림 38> 김득환, 합(합) V, 400x400x22mm	53
<그림 39> 김득환, 합(합) VI, 400x400x22mm	53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현대 사회의 수많은 시각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다양한 경험에 의해 가치관과 내면세계가 형성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분별력 있는 시야가 요구되고 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함과 동시에 자국문화를 이해하며 발전, 계승할 수 있는 태도와 문화 경쟁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감상교육은 예술적 심미안을 가지고 예술작품을 감상함으로써 미적안목과 미적정서를 길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전통회화 감상을 통해 작품의 양식적 특징이 무엇인지 규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대 및 후대 회화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또한 다른 지역의 미술과는 어떠한 연관이 맺어져 있는지, 그 작품이 반영하고 있는 사상이나 철학은 무엇인지, 그것이 반영하는 시대성은 무엇인지 등등의 다양한 역사적 현상들을 읽어내는 안목을 기를 수 있으며, 전통회화가 지니고 있는 강한 전통성과 특수성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1)

한국 전통 회화에 있어서 색채는 시각적 이미지가 아닌 한국인의 사상체계에 중심이 되는 음양오행사상(陰陽五行思想)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한국 회화는 오방색(五方色)의 색채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통회화 감상에 있어서 색채를 중심으로 오방색의 의미와 상징성, 이를 통한 한국인의 의식과 사상적 이해를 돕고, 전통회화

1) 안휘준, 『한국 회화의 이해』, 시공사, 2007, 11쪽.

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며, 전통회화의 특수성과 전통성의 가치를 인식하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전통회화 감상 방법으로 한국의 전통회화에 나타난 오방색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오방색에 나타난 우리 전통회화의 색채 개념이 무엇 인지를 이해하고 보다 흥미 있고, 효과적인 전통회화 감상을 통하여 민족적 자긍심과 정체성을 갖도록 다음과 같이 연구 방법을 설정하였다.

첫째, 미술 감상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적의의 그리고 미술 감상교육의 접근 방법을 문헌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둘째, 전통회화 감상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전통회화 감상교육의 실태를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전통회화 감상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셋째, 전통회화 감상에 있어서 색채를 중심으로 한 오방색에 대해 살펴보았다. 오방색의 이론적 배경으로 음양오행설의 개념과 음양오행설에서 나타난 오방색에 대해 알아보고, 오방색의 상징적 의미를 문헌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전통회화와 현대회화에 오방색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알아보고, 전통의 계승으로서 현대 문화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전통색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오방색 인지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넷째, 한국의 전통회화를 감상하는 방법으로써 전통색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탐구를 통한 감상,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박물관 및 문화유적 견학을 통한 체감하는 감상, 마지막으로 전통 색채를 직접 표현해 봄으로써 전통회화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표현을 통한 감상, 이 세 가지로 감상지도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전통회화 감상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중학교 미술교과 과정을 전반적으로 학습해온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의 전통색채인 오방색의 근원과 의미, 상징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전통회화를 감상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 있어서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회화 감상교육의 현황파악을 중학교 3학년, 1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둘째, 오방색이 우리나라에 전해져 뿌리내리는 과정에 있어서 자연 환경적 요인, 즉 색 원료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용이하지 못하여 다양한 색을 사용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색채 사용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상에서 비롯된 의식이 아니라 대체로 주술적인 목적과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명확한 색채학적 이론의 토대를 가지고 오방색을 살펴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통회화 감상의 흥미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 전통색채라는 관점에서 한국인의 의식세계와 관련한 오방색으로 전통회화를 감상하고자 하였다.

셋째, 오방색이 선조들의 의·식·주의 모든 생활면에서 고루 나타났지만 본 논문에서는 회화를 중심으로 하여 선조들의 사상 및 의식세계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색채를 살펴보았고, 그에 대한 사용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또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가에 중점을 두었다.

II.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전통회화 감상 연구에 있어서 기본적 배경이 되는 미술 감상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적 의의를 제시하면서 오늘날 미술 감상교육의 역할과 방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미술 감상교육의 접근방법에 대해 문헌자료를 통하여 방법적 측면을 알아보았다.

1. 미술 감상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적의의

감상교육의 의의는 오늘날 보다 본질적이고 적극적인 관점에서 논의된다. 오스본은 ‘기능으로서의 감상’을 자세히 논하며 감상 기능(skill)을 기른다는 것은 ‘새로운 지각력의 획득’으로 ‘둔해진 감각의 각성’과 같으며, 감상 기능의 획득은 ‘의식의 새로운 차원을 여는 일’이라고 하였다.²⁾ 이와 같이 인간에게 있어 새로운 지각력으로 둔하고 계발되지 못한 감각을 눈뜨게 하고, 결국에는 의식의 새로운 차원을 계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감상은 심미활동이다. 미술작품은 시각적 형상성 외에도 심미성을 가진다. 심미aesthetic란 미추를 분별하고 살피는 감상을 의미하는데 심미적 감상은 오감만이 아닌 전신 감각을 통한 미적 가치에 대한 지각 활동이다. 이러한 심미적 감상에서 예술작품은 먼저 정서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뒤, 이성적 사고와 사상적으로 공명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예술작품의 이러한 정서적 감동에 의한 사상적 공명을 통하여 예술 수용자는 이성적 변혁으로서의 새로운 ‘자기 창조’를 얻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감상자의 정신적 내면에서 형성되는 자기 자신의 새로운 창조임을 뜻한다. 이같이 미술 감상은 인간의 정서와 사상을 형성해가는 ‘자기 창조’의 교육이다.³⁾

2) 박휘락, 『미술감상과 미술비평 교육』, 시공사, 2003, 24쪽.

감성이란 ‘일반적으로 감각을 매개로 받아들이는 능력’으로 감성이라는 마음의 능력은 의식적으로 느껴진 경험의 성질을 가늠하게 하는 마음의 소산이다. 이처럼 감성은 특정 느낌이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능력을 뜻한다. 그리고 정서는 어떤 대상에 야기되거나 혹은 대상에 지향되어 일어나는 내적 감정이나 감각작용이다.⁴⁾ 인간은 이러한 감성과 정서의 내적 감각작용을 통해 미술작품을 수용하게 된다. 감성은 표현과 감상활동에 의하여 싹틔워지고 형성되며, 그것은 다시 표현과 감상의 폭과 깊이를 더해주는 능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미술교육은 감성의 영토를 확대하는 교육이다. 특히 미술작품에 대한 감상은 자신의 감성에 의하여 대상이 지닌 좋은 점과 미적인 요소를 감수하고 나아가 작품에 분석과 해석을 가하여 미적 가치를 이해하고 비판하며 자기화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감상은 감성과 이성의 조화로운 통일, 즉 감지感知 합일合一의 활동으로 풍부한 인간성을 기르는 교육으로써 의의를 지니고 있다.

다문화 시대에 다원 문화적 이해 교육은 오늘날 ‘다문화 미술교육’이란 입장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 미술교육을 통하여 자국문화에 대한 것은 물론 이거니와 동서양 여러 나라의 미술문화에 대한 이해교육은 ‘국제 이해’란 차원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다른 나라 문화를 감수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정체성의 확립이기도 하다. 다른 문화의 특징, 자국 문화의 관계, 정신적·문화적 가치 등을 비교하고 이해하여 인류 공동체로서의 평화적 삶에 대한 사상을 고취하고, 자기 확인을 통한 스스로의 삶과 정신을 고양해 나가는 주체적인 힘을 기르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문화적 상대성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문화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국제성을 기르는 데에 중점을 두며 다원적인 문화적 특성을 이해시키는 감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⁵⁾ 이처럼 오늘날 감상 교육의 역할과 중요성은 보다 구체적이고 폭넓은 의의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현행 미술교육

3) 박휘락, 앞의 책, 26~27쪽.

4) 전성수, 『미술교육 이론의 탐색』, 예경, 2003, 77쪽.

5) 박휘락, 앞의 책, 32~33쪽.

에서는 감상의 영역이 여러 가지 이유로 등한시되고 있다. 먼저는 감상 수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감상보다는 표현 위주의 교육, 다양한 감상 방법에 대한 활용 및 이해부족, 감상 수업 자료의 부족 등의 이유로 감상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감상의 근본적 역할과 감상교육의 의의를 통해 감상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감상교육의 접근방법을 알아보아 미술 감상교육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2. 미술 감상교육의 접근방법

1) 직관적 감상법

‘직관’이란 이성적 사고를 매개로 하지 않고 일어나는 인식작용이다. 어떤 사상에 대하여 분석적 사고를 가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고도의 인식 능력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현상의 ‘내부 본질까지도 보는 힘’이 직관인 것이다. 이러한 직관력에 의하여 작품을 수용, 감상하는 것을 중히 여기는 것이 직관적 감상법이다. 직관력에 의해서 얻는 미적 감동은 감상자의 풍부하고 예민한 감수성과 미적 정서, 그리고 서로 교감했을 때 얻는 쾌감과 판단이다. 직관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풍부한 미적 체험활동의 경험이 필요하며 작품의 정보를 얻는 것을 통해서 ‘지적 감동’도 이끌어 낼 수 있다.⁶⁾

2) 분석적 감상법

미술작품의 색, 형, 질 등과 같이 조형적 구성 요소들을 들어내어서 분석적으로 감상하는 방법이다. 분석하는 요소는 작품의 소재들과 주제, 구도, 색채, 명암, 양식, 사용된 재료와 작품 기술 등이다. 관점에 따라 분석할 때 분

6) 박휘락, 앞의 책, 136쪽.

석 대상으로서의 각 요소들은 하나의 작품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작품 전체 속에서의 요소이며 전체와 유기적인 관계에서 존재하는 요소들이기에 부분과 전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감상해야한다.⁷⁾

3) 비교감상법

한 가지 이상의 미술작품을 비교하여 두 대상에서 공통된 성질이나 유사점을 설명하거나 서로 상반되는 성질이나 차이점의 특성을 설명하는 방법이다. 점과 선, 좌 우, 표면과 이면, 부분과 전체, 수직과 수평, 구축과 해체 등이 비교 관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비교감상은 비교해 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대상의 특질을 분석하여 얻은 자료를 근거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작품의 질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하나의 기술이다. 한 작품을 다른 한 작품에 대비시키는 과정 가운데 얻은 자료에 의하여 감상 대상이 지니고 있는 본질로 접근해 들어가면서 귀중한 단서를 모으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⁸⁾ 이 같이 두 가지 이미지를 비교하여 유사성과 차이점을 찾는 활동을 통해 감상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며 능동적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

4) 분류 감상법

어떤 특성과 경향이 비슷한 것이나 다른 것끼리 나눠 보는 것이다. 그 가운데 작품의 특성이나 경향, 양식 등을 느끼고 감상, 이해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제(사생적 주제, 상상적 주제, 종교적 주제, 생활적인 주제 등)와 재료(수채화물감인가, 유화물감인가, 금속인가, 석재인가 등), 방법(사실적인가, 구상적인가, 반추상적인가, 추상적인가, 입체적인가, 부조적인가 등), 양식(사실적인가, 추상적인가, 구성적인가, 표현주의적인가 등) 등에서 제공 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여러 작품을 수집, 준비하게 하거나 교사가 분류기준에 맞는 의도적인 작품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분류학습 방법은 다양하게 개발

7) 박휘락, 앞의 책, 137쪽.

8) 박휘락, 앞의 책, 141, 143쪽.

되어 흥미와 의욕을 갖게 하며, 목적에 맞게 학습이 전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⁹⁾ 분류법은 주도적 감상 방법으로 학생들의 흥미와 적극적 태도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작품의 특성을 이해하는 감상 방법이다.

4) 아레나스 대화중심 감상법

아레나스의 감상교육은 이전의 설명이나 해설 중심 감상법을 비판하고 자기 주도적 능력을 중시한 감상자 중심의 대화형 감상방법이다. 감상 절차는 먼저 학습자가 미적 대상을 관찰하여 감상하고, 그 감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이야기하는 형식을 취한다.¹⁰⁾ 여기서 교사의 역할은 학생이 자신의 감상에 대한 견해를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존중하며 칭찬과 공감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레나스는 ‘수용’, ‘교류’, ‘통합’의 세 가지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수용’이라고 하였다. 수용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감상자의 사고를 촉진하는 교사는 ‘열린 질문’의 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나?’ 등과 같은 열린 질문을 통해 자유롭게 생각하고 답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방법은 감상자에게 있어 어떤 하나의 답을 찾는 과정이 아님을 알려주어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

9) 박휘락, 앞의 책, 159쪽.

10) 류희주, 「미술감상교육에서 대화 중심 교수-학습법이 미술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15쪽.

Ⅲ. 중학교 미술교육에서 한국 전통회화 감상 교육 현황

1. 전통회화 감상 교육의 필요성

회화는 미술의 어떤 다른 분야보다도 인간의 다양한 사상이나 철학을 많이 담아 왔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창의성을 민감하게 반영하면서 변화의 첨단을 걸어왔다. 이러한 점에서 회화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높은 차원의 창의력의 한 대표적 표현체인 동시에 그 척도이며 문화의 한 전형적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회화의 발달 여부는 다른 미술 분야나 예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한 국가나 민족의 창의력 내지는 문화 역량을 가늠하게 하며 그 특성을 파악하는데 좋은 지표가 된다.¹¹⁾ 이처럼 전통회화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남아 있는 하나의 미술작품의 의미로써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 역량을 나타내는 중요한 시대적 보물이자 앞으로 문화 선진국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과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와 문화를 접하며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문화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전통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통회화 감상교육은 우리의 정서와 사상을 이해하고 우리의 주체성을 분명히 하여 올바른 미의식을 가지고 문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청소년들은 전통회화 감상 교육을 통해서 작품의 양식적 특징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그것이 전대 및 후대 회화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또 다른 지역의 미술과는 어떠한 연관이 맺어져 있는지, 그 작품이 반영하고 있는 사상이나 철학은 무엇인지, 그것이 반영하는 시대성은 무엇인지 등의 다양한 역사적 현상들을 읽어내는 안목을 기를 수 있으며, 전통

11) 안휘준, 앞의 책, 10쪽.

회화가 지니고 있는 강한 전통성과 특수성을 인식을 할 수 있다.

전통이란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변화하는 역사와 시대 속에서도 그 가치가 남아있는 것을 의미 한다. 이는 전통의 의미가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것 뿐 아니라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나아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원동력을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¹²⁾ 이러한 이유로 전통 미술 교육에 있어서 전통의 보존과 계승은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전통회화의 현대적 변용을 이룰 수 있는 적절한 전통회화감상과 표현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미술 교과 교육과정의 감상활동의 목표처럼 미술문화에 대한 문화적 가치를 미학적이고 역사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전통 미술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변용을 통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세계화할 수 있는 자긍심을 길러주는 역할로 전통회화 감상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12) 강여진, 「전통회화의 이해를 위한 감상지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4쪽.

2. 전통회화 감상 실태 조사

전통회화 감상교육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전통회화 감상교육 지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1) 연구 방법

① 연구 대상 및 시기

설문조사의 대상은 서울 동대문구에 소재한 전동중학교 3학년 3반, 5반, 6반, 7반 총 107명을 대상으로 2012년 10월 18일, 학생조회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② 조사 방법

전통회화 감상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선다형의 문항으로 설문지를 통해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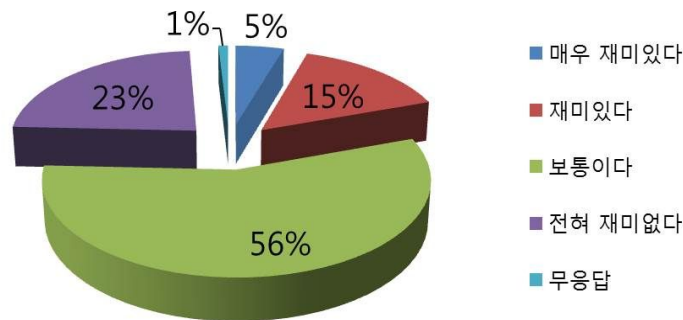
③ 분석 방법

각 항목별로 전통회화 감상과 관련된 문항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백분율로 처리하였고, 데이터 결과를 원형 차트로 표시하였다.

2) 항목별 분석 내용

<표 1> 전통회화 감상수업 실태 (설문지-문항 1)

1문항	전통회화 감상에 대한 흥미도는?		
	내용	반응 (명)	비율(%)
①	매우 재미있다	5명	5%
②	재미있다	16명	15%
③	보통이다	60명	56%
④	전혀 재미없다	25명	23%
무응답	무응답	1명	1%
계		107명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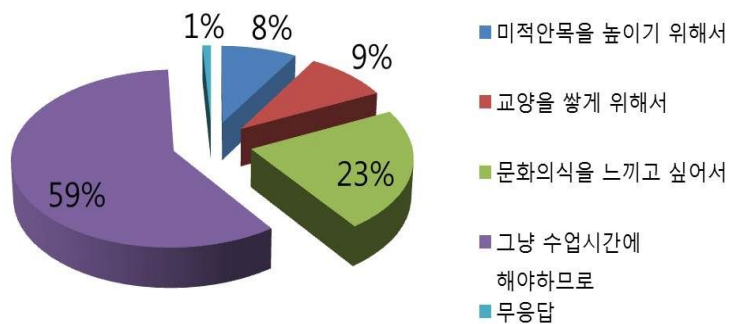


전통회화 감상 흥미도 문항의 답을 분석해보면 56%의 학생들이 전통회화 감상에 대해 뚜렷한 흥미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다. ‘그저 그렇다’의 의견이 반 이상인 가운데 설문지 4번 문항(서양미술과 전통미술의 흥미도 비교)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미술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단 7%에 불과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에 ‘보통이다’라는 답변에 대한 해석은 흥미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매우 재미있다’ 5%, ‘재미있다’ 15%의 결과에 비해 무려 23%의 학생들이 전통회화 감상에 대해 ‘전혀 재미없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학

생들이 전반적으로 전통회화 감상에 대한 흥미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2> 전통회화 감상수업 실태 (설문지-문항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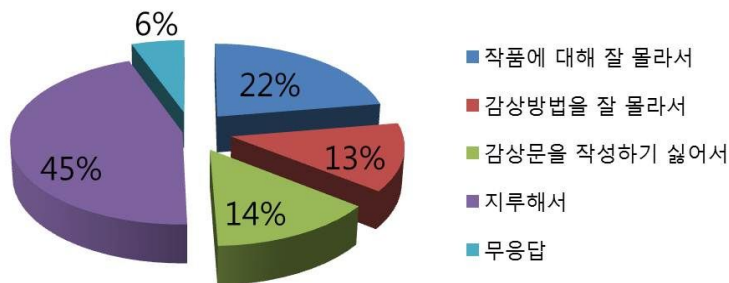
2문항	전통회화 감상은 왜 하는가?		
	내용	반응 (명)	비율(%)
①	미적 안목을 높이기 위해	9명	8%
②	교양을 쌓기 위해	10명	9%
③	문화의식을 느끼고 싶어서	24명	23%
④	그냥 수업시간에 해야 하므로	63명	59%
무응답	무응답	1명	1%
계		107명	100%



전통회화 감상의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그냥 수업시간에 해야 하므로’가 59%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문화의식을 느끼고 싶어서’가 23%로 나타났으며 ‘교양을 쌓기 위해서’9%, ‘미적안목을 높이기 위해서’8%의 순서로 나타났다. 결과를 볼 때 학생들의 전통회화 감상의 동기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비록 23%이지만 전통회화 감상이 학생들에게 자국의 문화를 접하는 기회가 되며 문화의식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 전통회화 감상수업 실태 (설문지-문항 3)

3문항	전통회화 감상이 재미없는 이유는?		
	내용	반응 (명)	비율(%)
①	작품에 대해 잘 몰라서	23명	22%
②	감상방법을 잘 몰라서	14명	13%
③	감상문을 작성하기 싫어서	15명	14%
④	지루해서	48명	45%
무응답	무응답	6명	6%
계		107명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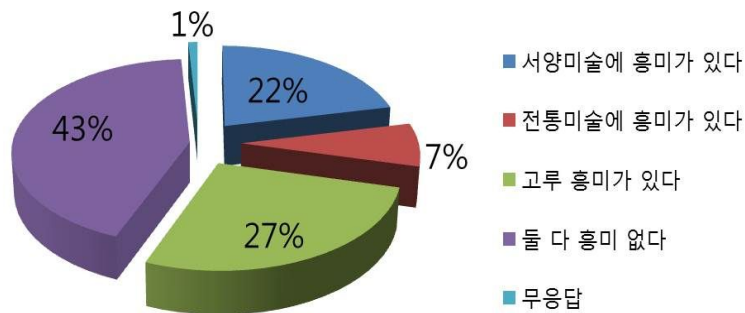


전통회화 감상이 재미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45%의 학생들이 ‘지루하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전통회화 감상 교육의 방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을 보게 되었다. 또한 작품에 대한 이해도와 감상방법의 영역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작품의 이해를 돕고, 감상의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학생들은 한국 전통미술작품보다는 서양미술작품을 더 많이 접하고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미술의 작품 자체도 잘 알지 못하고 우리나라 전통회화 작가들도 생소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때에 작품과 작가를 잘 모르는 것이 전통회화 감상에 대한 흥미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전통회화 감상수업 실태 (설문지-문항 4)

4문항	서양미술과 전통미술에 대한 흥미도 비교		
	내용	반응 (명)	비율(%)
①	서양미술에 흥미가 있다	23명	22%
②	전통미술에 흥미가 있다	8명	7%
③	고루 흥미가 있다	29명	27%
④	둘 다 흥미 없다	46명	43%
무응답	무응답	1명	1%
계		107명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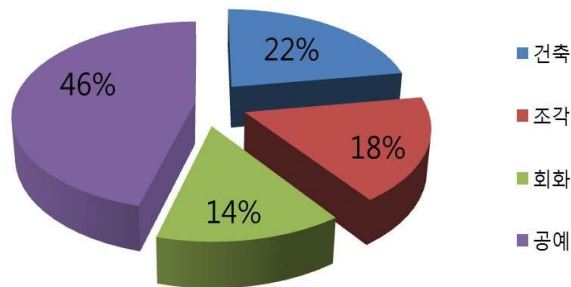


서양미술과 전통미술에 대한 흥미도 비교에서는 서양미술이 22%, 전통미술의 흥미도가 7%로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전통미술에 대한 흥미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로는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지루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미술 감상 교육에 있어서 서양미술이 조금 더 나은 편이긴 하지만 ‘고루 흥미 있다’에 비해 ‘둘 다 흥미 없다’라고 응답한 답변이 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미술 감상에 대한 흥미도가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감상교육의 흥미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수방법에 대한 시도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5> 전통회화 감상수업 실태 (설문지-문항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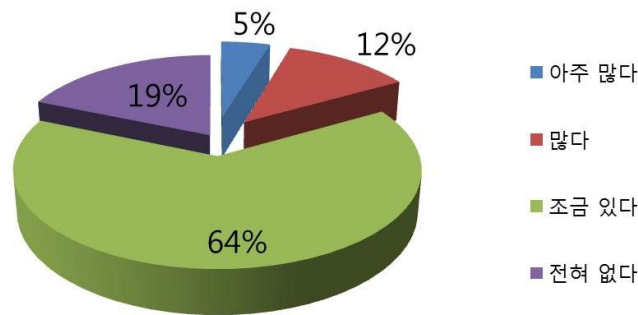
5문항	전통미술에서 가장 관심 있는 영역은?		
	내용	반응 (명)	비율(%)
①	건축	24명	22%
②	조각	19명	18%
③	회화	15명	14%
④	공예	49명	46%
무응답	무응답	0명	0%
계		107명	100%



전통미술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질문에는 공예가 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건축 22%, 조각 18%, 회화 14% 순서로 나타났다. 주로 평면적인 작품 보다는 입체적인 조형작품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자기나 건축물 등을 많이 접하고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전통회화에 대한 관심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통해서, 또는 감상수업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통회화나 공예작품을 가까이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이유로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응답이 나온 것으로 보여 진다.

<표 6> 전통회화 감상수업 실태 (설문지-문항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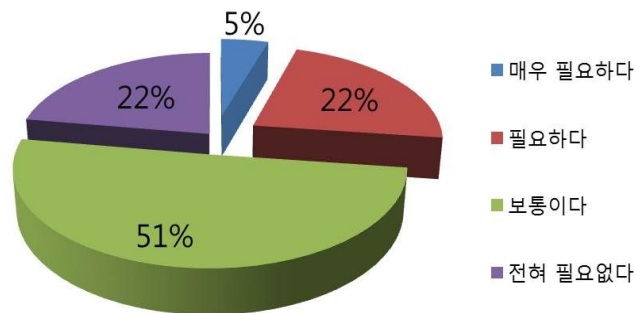
6문항	전통회화 감상경험은?		
	내용	반응 (명)	비율(%)
①	아주 많다	5명	5%
②	많다	13명	12%
③	조금 있다	69명	64%
④	전혀 없다	20명	19%
무응답	무응답	0명	0%
계		107명	100%



전통회화 감상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조금 있다’라고 대답한 수가 64%로 나타났고 ‘전혀 없다’ 19%와 ‘많다’ 12%를 비교해 볼 때 전통회화 감상 경험이 많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수치는 감상수업에서 전통회화를 다루는 경우가 많이 없거나 감상수업 자체가 학교 미술교육에서 활발히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감상수업이 표현활동과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감상수업의 자료 부족, 흥미 있는 감상 접근방법의 부족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로 현 미술교육에서는 감상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표 3>에서 나타난 결과를 볼 때에 전통회화 감상교육의 빈도수가 결국 감상방법과도 연관이 있고, 작품의 인지도와 학생들의 흥미와도 관련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표 7> 전통회화 감상수업 실태 (설문지-문항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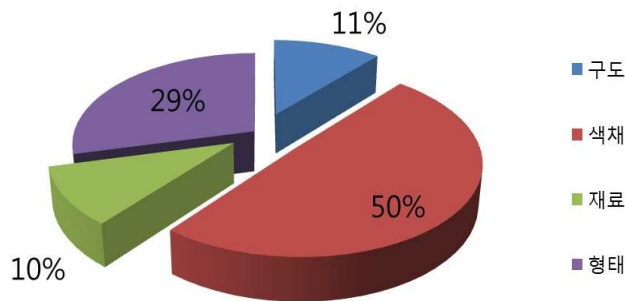
7문항	전통회화 감상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도		
	내용	반응 (명)	비율(%)
①	매우 필요하다	5명	5%
②	필요하다	24명	22%
③	보통이다	54명	41%
④	전혀 필요 없다	24명	22%
무응답	무응답	0명	0%
계		107명	100%



전통회화 감상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전통회화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나타내주는 결과가 나왔다. ‘매우 필요하다’는 5% 밖에 되지 않았고 ‘필요하다’와 ‘전혀 필요 없다’가 22%로 동일한 수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에 학생들이 전통에 대한 개념과 인식, 전통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통회화의 감상에 있어서도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전통에 대한 접근방법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다. 전통미술에 대한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주입되는 방식이 아니라 생활과 문화, 그 시대의 사상과 의식을 이해하는 바탕에서 이루어질 때 진정한 전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표 8> 전통회화 감상수업 실태 (설문지-문항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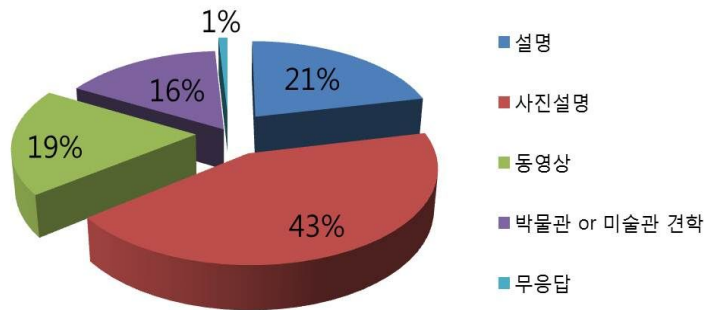
8문항	전통회화를 감상 할 때 주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내용	반응 (명)	비율(%)
①	구도	12명	11%
②	색채	53명	50%
③	재료	11명	10%
④	형태	31명	29%
무응답	무응답	0명	0%
계		107명	100%



전통회화를 감상 할 때 주로 관심 있게 보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50%가 ‘색채’라고 대답했으며, ‘형태’ 29%, ‘구도 11%, ‘재료’ 10%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회화’하면 화려한 색채가 떠오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주로 먹으로 그려지는 산수화 종류도 많이 있지만 민화나 화조·영모화, 문자도 초상화 그리고 전통가옥에 나타난 단청 등 원색적인 화려함을 지니고 있는 채색작품들도 많이 접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전통회화에 대해 학생들이 색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색채를 활용한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감상 방법에 좋은 시도일 것이다.

<표 9> 전통회화 감상수업 실태 (설문지-문항 9)

9문항	전통회화 감상수업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내용	반응 (명)	비율(%)
①	설명	23명	21%
②	사진 설명	46명	43%
③	동영상	20명	19%
④	박물관 or 미술관 견학	17명	16%
무응답	무응답	1명	1%
계		107명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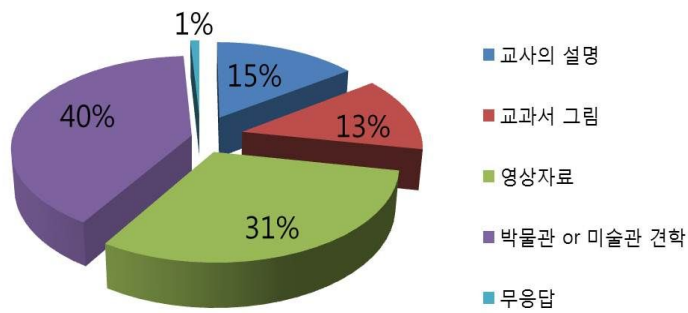


현재 전통회화 감상수업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사진설명’이 43%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이론적 설명’이 21%, ‘동영상’이 19%, ‘박물관이나 미술관 견학’이 16%로 나타났다.

학교 교육과정에 맞추어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 주로 수업시간 안에 가능한 설명 위주의 감상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설명위주의 수업이 진행 될 때에 교사는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자료나 접근방법을 생각하며 전통회화 감상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전통회화 감상은 그 당시의 문화와 사상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사와 관련된 영상물을 통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것도 좋은 감상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표 10> 전통회화 감상수업 실태 (설문지-문항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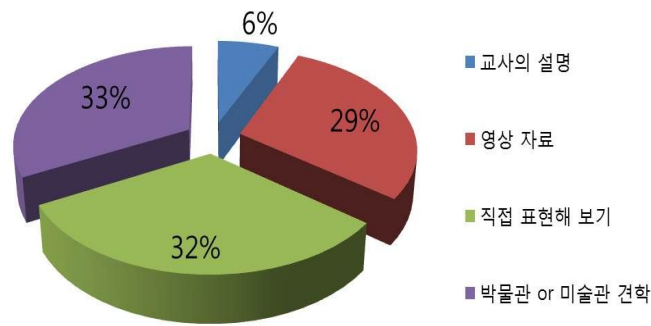
10문항	어떤 감상법이 전통회화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것 같습니까?		
	내용	반응 (명)	비율(%)
①	교사의 설명	16명	15%
②	교과서 그림	14명	13%
③	영상 자료	33명	31%
④	박물관 or 미술관 견학	43명	40%
무응답	무응답	1명	1%
계		107명	100%



전통회화 감상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감상 방법에 대한 질문에 ‘교사의 설명’이 15%, ‘교과서 그림’이 13%로 나타났고, 40%의 학생들이 ‘박물관 or 미술관 견학’이라고 응답했으며, 31%의 학생들이 ‘영상 자료’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회화 감상에 있어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작품의 모습과 형태, 색채, 구도 등을 학생들이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1> 전통회화 감상수업 실태 (설문지-문항 11)

11문항	감상 수업 시 가장 관심 있는 감상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용	반응 (명)	비율(%)
①	교사의 설명	7명	6%
②	영상 자료	31명	29%
③	직접 표현해 보기	34명	32%
④	박물관 or 미술관 견학	35명	33%
무응답	무응답	0명	0%
계		107명	100%



가장 관심 있는 감상수업 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박물관 or 미술관 견학’이 33%의 비율을 차지했고, ‘직접 표현해 보기’가 32%, ‘영상 자료’가 29%, ‘교사의 설명’이 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9>와 <표 10>에서 나타난 결과에서 설명위주의 감상수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 방법이고, 학생들이 이야기한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전통회화 감상 방법에도 교사의 설명은 15%로 비교적 낮은 비율의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선호하는 감상수업 방법은 교사의 설명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때 현행 전통회화 감상수업 방법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과 흥미에 귀 기울여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들은 주입식의 감상수업이 아니라 직접 보고, 느끼고, 표현하는 감상에 더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결과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

3) 분석결과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전통회화 감상교육 현황을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고, 전통회화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와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전통회화 감상교육에 대한 동기를 심어주어야 한다. <표 2>를 보면 전통회화 감상을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절반이 넘는 59%의 학생이 ‘그냥 수업시간에 해야 하므로’라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학생들이 전통회화를 감상하는 이유와 전통회화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음을 알 수 가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감상영역을 더 확대하고 감상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감상교육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그림을 이해하고, 그림을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감상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학생들에게 전통회화 감상에 대한 동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노력은 교사의 의무 중 하나이다. 전통회화의 미감이 어떠한지, 왜 전통회화를 배우고, 전통미술이 계승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이유와 목표가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학생들에게는 저마다 각기 다른 전통회화 감상 동기가 있을 것이다. 흥미롭기 때문에, 역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민족의식과 우리의 문화를 느끼고 이해하고 싶기 때문에 등의 여러 동기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냥 수업시간에 해야만 하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교사는 전통회화 감상교육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며, 앞서 이야기한 다양한 동기들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통회화 감상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1>을 보면 전통회화 감상에 대한 흥미도를 묻는 질문에 56%의 학생이 ‘보통이다’

라고 대답했지만 ‘재밌다’ 15%에 비해 ‘전혀 재미없다’의 응답이 23%로 전통회화 감상을 재미없어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서양미술과 전통미술의 흥미도를 비교한 <표 4>를 보면 서양미술에 흥미가 있는 22%에 비하여 전통미술에 흥미를 느끼는 학생들은 7%에 불과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전통회화의 흥미가 낮은 이유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표 3>을 보면 전통회화 감상이 ‘지루하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45%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작품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2%로 나타났다. 전통회화를 접하게 되는 횟수는 전통회화 감상의 흥미도와 연관이 있다. 많이 접하게 되는 영역일수록 친숙함을 느끼고 거부감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위와 같은 결과는 전통회화 감상 수업의 내용과 방법의 문제로 이어진다. 감상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실제 수업에서 감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생들의 흥미와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시각문화 수업과 서양미술, 현대미술과 관련된 영역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고 전통미술 감상은 자연스럽게 소홀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수업에 있어서 흥미 있는 주제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는 영역에 편중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며 균형 있는 감상수업이 요구되고 있다. 교사가 전통회화 감상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면 현재 흥미가 낮더라도 전통회화 감상에 대한 흥미를 학생들로 하여금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교수방법을 연구하고 수업에 반영하여 전통회화 감상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셋째, 전통회화 감상수업에 대한 효과적이고 다양한 감상방법 고찰이 필요하다. 전통회화 감상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감상방법에 대한 응답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한다. <표 9>에서는 현재 ‘사진설명’이 43%로 전통회화 감상수업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시간적 제한에 따른 감상방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작품을 실제로 보면서 감상하는 것에 한계

와 제약이 있다 보니 사진설명이 감상방법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통회화 감상수업 방법에서는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있지 못하다는 설문결과가 나타났다. <표 10>을 보면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효과적인 감상방법에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견학’이 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영상자료’가 31%로 나타났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사진설명의 방법이 교사의 일방적인 설명으로 이루어지고 주로 주입식으로 학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의 전통회화 감상수업에 대해 지루하다는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과정과 시간, 장소에 대한 제약으로 감상수업마다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을 직접 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은 조금 더 적극적이고, 흥미 있는 감상방법을 원하고 있고 교사는 그에 따른 흥미 있는 전통회화 감상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감상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 수업 전에 감상수업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전통회화를 이해하고 느끼며 효과적으로 감상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지속적인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IV. 오방색을 활용한 전통회화 감상 방안 고찰

1. 오방색의 이론적 배경

1) 음양오행설의 개념

음양오행이란 우주와 인간의 모든 현상을 음, 양 두 원리로 설명하는 음양설과 이 음양설의 영향을 받아 삼라만상의 생성소멸을 오원기(五元氣), 곧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로 설명하는 오행설을 말한다. 이 두 가지 설을 함께 묶어서 보통 음양오행설이라 하고 그 음양오행설의 논리체계를 음양오행사상이라고 한다.¹³⁾ 음(陰)과 양(陽)은 태극(太極)에서 유래한다. 태극은 무극(無極)에서 비롯되는데 무극은 천지창조 이전의 혼돈(混沌)이며 무기체(無機體) 상태이다. 형체가 없던 무극에서 태극이 나타나고, 태극에서 다시 음과 양의 두 기운이 갈라져 가볍고 양명(亮明)한 기운은 위로 올라가 하늘이 되고, 무겁고 탁한 기운은 아래로 갈라져 땅이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태극이 음양을 낳고 음과 양의 조화에서 천지가 구현되었으며, 그 천지에서 만물이 소생하여 온갖 삼라만상(森羅萬象)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음양의 최초의 구분이요, 천지의 창조이다.¹⁴⁾

음양(陰陽)은 동양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 하나의 원리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문화권의 사유와 사물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이 음양사상은 자연철학적인 근원에서 시작되었지만 순환적 질서를 상징하면서 우주적 이원성의 차원을 넘어 종교적, 윤리적 차원 등의 범위를 포괄하였고, 사회적 제도, 풍속, 신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성원리로서 나타나왔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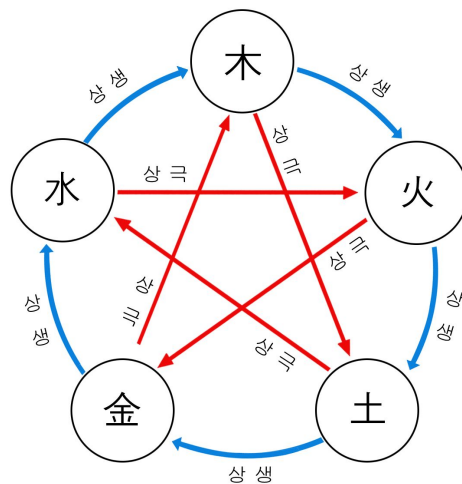
13) 김수옥, 「한국 미술에 나타난 음양오행에 의한 색채표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1999, 3쪽.

14) 구미래, 『韓國人의 상징세계』, 교보문고, 1993, 24쪽.

15) 양계초, 『음양오행설의 연구』, 신지서원, 1993, 29쪽.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성장 발전과 소멸이라는 음양변화의 법칙에 의해 운행되고 존재한다. 음양오행설에서의 우주는 음(陰)과 양(陽)의 조화이며, 이는 태극(太極)이 되고, 또 오행(五行)이 된다. 지(地)와 천(天), 밤과 낮, 식물과 동물, 여성과 남성 등 모든 것들은 서로 상반되고, 대립되면서 존재하게 되고, 또한 그 일정한 속성에 따라 음(陰)과 양(陽)으로 나누어진다. 더 나아가 일체의 정(停)과 동(動), 암(暗)과 명(明), 내재와 외재 등의 속성은 모두 음과 양의 대립관계에 있다.¹⁶⁾ 음양(陰陽)은 우주 생성원리의 근본이며 모든 생존 질서의 관념이다. 이 두 가지 원초적 세력이 우주를 지배하는데 이들 작용을 보면 음은 어둡고 수동적이며, 양은 밝고 능동적인 속성을 보유하여 생물과 무생물의 모든 구조를 형성한다. 하늘과 땅, 낮과 밤, 그리고 모든 생물과 무생물들을 인간과 서로 연결시켜 해석하였다. 음양의 두 기운이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의 오행을 생성하며 순환하는데 서로 상생하기도 하고 상극하기도 한다. 태양과, 수성, 목성, 화성, 토성, 금성이 달이 지구와 멀고 가까워질 때 생기는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¹⁷⁾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을 구심점으로 자전과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하나의 별이다. 오행 알림표를 통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1> 음양오행 순환구조



16) 박옥자, 「고구려 고분벽화의 사신도에 내재된 사신과 조형적 특징 연구」, 경희대학교 2003, 26쪽.

17) 이재만, 『한국의 전통색』, 일진사, 2011, 12쪽.

<표 12> 오행 소속 알림표

구분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
절기	봄(春)	여름(夏)	3	9	12	6	가을(秋)	겨울(冬)
방위	동	남	중앙				서	북
오상	인(仁)	예(禮)	신(信)				의(義)	지(智)
색	청	적	황				백	흑
맛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곡물	팥	수수	기장				현미	김은콩
장부	담/간	소장/심장	위/비장				대장/폐	방광/신장
오관	눈	혀	몸				코	귀

오행의 이치에 있어서 첫 번째가 수(水)인데 물은 흘러내리는 높은 산꼭대기에서부터 흘러내리면서 만물을 적시고 만물에게 자기가 가진 영양분을 공급하고 개울로 냇가로 강으로 흘러서 바다에 도달하니 짠맛만 남았더라 하여 물은 흘러내림을 뜻하고 흘러내림은 짠맛을 만들어 낸다.

두 번째인 화(火)는 타오르면서 퍼지는 것이며 위로 올라가는 것을 뜻하며 열심히 자기 몸을 부풀려 태우고 나니 입맛이 쓰다 하여 쓴맛을 만들어 낸다. 세 번째인 목(木)은 굽고 곧은 것이 특징이고, 자라남을 뜻하며 위로 올라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나무의 결실은 열매가 달려 무르익으면서 신맛을 내므로 나무는 신맛을 만들어낸다. 네 번째는 금(金)이다. 원래 금(金)의 성격은 빛을 내는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고 금(金)의 성질은 변화무쌍하여 우리 인류사회에도 적지 않은 발전을 주었다. 그래서 금(金)의 성격은 변질됨으로써 녹여서 금반지도 만들고 온갖 장식품을 만들어낸다. 또한 금(金)은 매운맛을 만들어 낸다. 토(土)는 다섯 번째로, 우리 인류는 아주 먼 선사시대부터 흙에서 살면서 열매와 식물을 채취해서 삶을 누려왔듯이 완전한 농경문화를

이루는 데까지는 흙에서부터 삶의 지혜를 얻어왔다. 우리는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삶을 영위하다가 결국은 죽어서 땅속으로 묻히게 되는 대자연의 순환 속에서 이어져왔다. 토(土)에 맞는 맛은 단맛을 내는데 그 뜻이 있다. 이처럼 선조들은 오행과 음양의 조화를 통해서 세상과 자연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

2) 음양오행설에 의한 오방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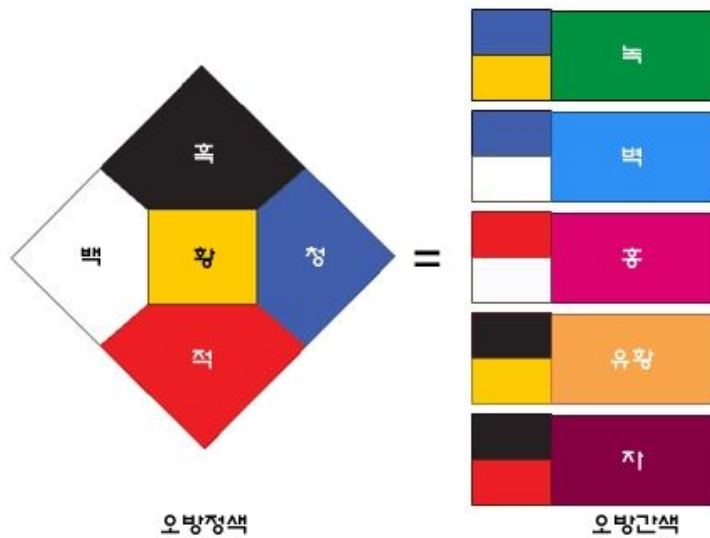
우리나라에 실용주의 학문이 도입된 것은 19세기 중엽이며, 실학이라는 이름으로 자연과학적 세계관에 눈뜨기 시작한 개화기까지의 한국인의 의식세계의 중심이었던 것은 역시 음양오행적인 우주관에 바탕을 둔 사상체계였다. 따라서 한국의 문화는 모두 이러한 사상체계에 바탕을 둔 의식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색채문화 역시 음양오행사상에 의해 모든 것이 규정되었고 의미가 부여되었다.¹⁸⁾

오방색(五方色)은 음양오행설에 따른 오행(五行)의 각 기운과 직결된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黑)의 다섯 가지를 기본으로 하는 색이다. 동서남북 및 중앙의 오방(五方)이 주된 골격을 이루고 있는 양(陽)의 색이다. 다섯 가지 방위 사이에 놓이는 간색(間色)으로서의 홍(紅), 자(紫), 벽(碧), 녹(祿), 유향색(驪黃色)은 음(陰)의 색이다. 그리고 동방과 중앙의 간색은 녹색, 동방과 서방의 간색은 벽색, 남방과 서방의 간색은 홍색, 북방과 중앙의 간색은 유향색이며 북방과 남방과의 간색은 자색이다. 오방색과 간색은 다시 70가지의 잡색으로 세분화된다.

교색:창황색, 총색:청색, 강색:적색, 취색:청색, 치색:흑색, 이색:흑색,
 미색:흑색, 동색:적색, 주색:적색, 소색:적색, 노(旅)색:흑색, 노(爐)색:흑색, 오
 색:흑색, 여색:녹색, 황색:황색, 최색:배색, 호색:적색, 애색:백색,
 혼색:천강색, 운색:황색, 돈색:황색, 단색:적색, 은색:적흑색, 현색:흑색,
 전색:강색, 표색:청백색, 교색:백색, 호색:백색, 조색:흑색, 고색:백색,

18) 하용득,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심리』, 명지출판사, 2001, 31쪽.

과색:백색, 상색:천황색, 창색:심청색, 정색:적색, 정색:청흑색, 추색:청적색, 유색:흑색, 검색:흑색, 담색:흑색, 감색:청적색, 참색:청흑색 천청흑색, 담색:흑색, 남색:청색, 담색:청황색, 암색:흑색, 암색:심흑(深黑)색, 암색:심흑색(靑黑), 암색:흑색 칠색:흑색, 날색:흑색, 학색:백색, 화색:적색, 혁색:적색, 익색:감색, 아청색:감색, 천색:강색, 강색:적색, 천색:강색, 옥색:참색, 애색:창백색, 화색:황색, 온색:적황색, 낙색:흑백색, 번색:적색, 분색:백색, 목색:흑색, 진색:천강색 등이 있다.¹⁹⁾



<그림2> 오방정색과 오방간색²⁰⁾

이수신편(理藪新編)에서는 오방색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청색은 동방의 정색으로 목성에 속하고 적색은 남방의 정색으로 화성에 속하고 황색은 중앙의 정색으로 토성에 속하고, 백색은 서방의 정색으로 금성에 속하고, 흑색은 북방의 정색으로 수성에 속한다.

19) 하용득, 앞의 책, 47-49쪽.

20) 인터넷 사이트 <http://ltitest.com> 참조.

일연(一然)의 저서 삼국유사(卷第三)를 보면 방위와 색의 관계가 나타나 있다.

백두산의 줄기가 뻗어 내린 이 산은 각 대마다 보살이 머무르고 계시므로 마땅히 청색(靑色)방인 동대(東台) 북각 아래, 즉 북대의 남쪽 기슭에 관음방을 두어 원상(圓像)의 관음보살과 푸른 바탕에 그린 일만 관음보살상을 모시고..... 적색(赤色)방인 남대(南台) 남쪽에는 지장경을 두고, 원상 지상보살과 붉은 바탕에 그린 팔대보살을 수위로 한 일만 지상보살을 모시고... 백색(白色)방인 서대(西台) 남쪽 면에는 미타방을 두고, 원상 무량수불과 흰 바탕에 그린 무량수여래를 수위로 한 일만 대세지보살을 모시고... 흑색(黑色)방인 북대(北台) 남쪽 면에는 나한당을 두고 원상 석가불과 검은 바탕에 그린 석가여래를 수위로 한 오백 나한을 모시고... 황색(黃色)방인 중대(中台)의 진여원에는 한 가운데는 니상 문수보살 부동상을 모시고 뒷벽에는 누런 바탕에 그린 비로나자불을 수위로 한 삼륙화형을 모시고...²¹⁾

삼국유사에 표현된 것처럼 동방에 청색, 남방에 적색, 서방에 백색, 북방에 흑색, 중앙에는 황색을 두었다. 이처럼 음양오행에 의한 방위와 색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였다.

이 뿐만 아니라 음양오행의 이치에 따라 사용된 색은 그 유형이나 표현양상에 있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공간에 있어서는 동서남북과 중앙, 오방위의 수평적 개념으로 신령한 동물들이 수호하는 방위에 해당하는 색이 방위별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가 있다. 동방에는 청룡(靑龍), 서방에는 백호(白虎) 남방에는 붉은빛을 띤朱雀(朱雀), 북방에는 흑색의 현무(玄武)로서, 풍수지리설에서는 좌청룡, 우백호, 북현무, 남朱雀이라 하여 가장 중요한 방위 설정의 개념으로 삼고 있다.

21) 하용득, 앞의 책, 31-3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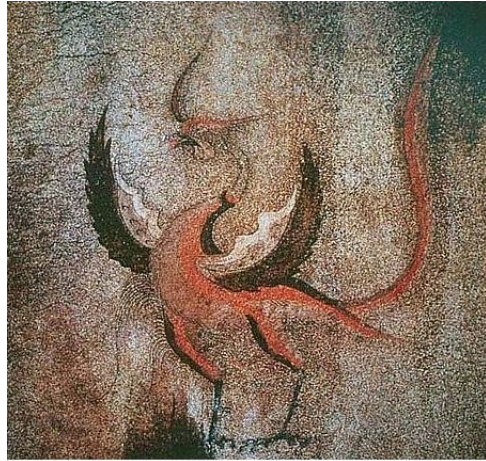
<그림 3> 청룡도(강서중묘) 평안남도 강서군 강서면 삼묘리에 위치.



<그림 4> 백호도(강서중묘) 평안남도 강서군 강서면 삼묘리에 위치.



<그림 5> 현무도(강서중묘) 평안남도 강서군 강서면 삼묘리에 위치.



<그림 6> 주작도(강서중묘) 평안남도 강서군 강서면 삼묘리에 위치.

이는 예로부터 왕도(王道)를 정할 때 기본적인 요건이 되어왔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상을 모시는 묘자리 설정의 기준이 되고 있다.

나라에서 지내는 다섯 가지 의례인 오례(五禮)의 의식에서도 모두 이러한 음양오행의 이치에 따랐다. 군례의 예를 보면, 진영의 각 위치에 따라 군기(軍旗)로서 대오방기(大五方旗)를 사용하였다. 동쪽에는 청룡기 또는 청색기, 서쪽에는 백호기 또는 백색기, 중앙에는 황색기, 남쪽에는 주작기 또는 적색

기, 북쪽에는 현무기 또는 흑색기를 세워 방위신의 보호를 받고자 하였다. 또한 나라의 예식인 가례 때에도 중앙에 황룡기(황색바탕에 황룡을 그림), 오른쪽에 백호기(흰 바탕에 흰 호랑이 그림)와 현무기(흑색 바탕에 현무 그림), 왼쪽에 청룡기(청색 바탕에 청룡 그림)와 주작기(적색 바탕에 주작 그림) 그리고 홍문대기(적색 바탕에 청룡 그림)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음양오행의 이치에 따라 색채를 사용하였으며 특히 국가적인 의례나 의식 때에는 이를 철저히 지켜 국가의 번창과 나라의 평안을 희구하였다.

복식에 있어서도 우리의 색채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혼례나 왕실복, 관복, 사대부가의 의복, 기생, 무당 등 이들의 복식에서도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른 색채 문화가 나타난다.

먼저는 색의 기본인 오채 자체를 모두 사용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청, 적, 황, 백, 흑이 오색천을 이어 붙여서 만든 색동저고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주로 돌이나 명절 때 어린이들에게 만들어 입혔다. 이처럼 색동도 오행사상에 따른 오색에서 비롯된 것이다. 색동의 의미는 음양오행에 따른 다섯 가지 색을 사용하여 오행을 두루 갖추으로써 사된 기운을 막고 어린이의 무병장수를 기원한다는 뜻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오색의 배치에 있어서 오행을 상생(相生)하는 방향으로 나열하여 무궁한 발전을 기구해왔다. 색동처럼 오색을 계속 반복시키면서 이어 붙이는 것 외에도 오색을 이용한 복식은 매우 다양하다. 복주머니가 그 예이다. 복주머니는 복을 받아들이고 간직한다고 하여 오색을 갖추어 만드는 것이 상례이다. 이 주머니를 ‘오방낭자(五方囊子)’라 하는데 청, 적, 황, 백, 흑의 다섯 가지 색 비단조각으로 만들어 만사평안을 비는 뜻을 담았다.²²⁾ 이 외에도 혼례 때 부인들의 가례복인 녹의홍상은 오행의 상행과 관련하여 장수하고 부귀가 충만하도록 하는 기원의 뜻을 담고 있으며, 신부의 얼굴에 바르는 연지끈지도 시집가는 여인을 투정하는 음귀에 대한 주술적 의미에서 사용되었다.

식생활에서는 간장 항아리에 붉은 고추를 끼운 금줄을 두르는 것은 나쁜

22) 구미래, 앞의 책, 79-82쪽.

기운의 근접을 막기 위한 것이며, 팔죽, 시루떡도 음의 기운을 물리치고자 하는 것이다. 또 잔칫상에 오르는 국수는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국수위에 올려진 오색고명은 오행에 순응하는 복을 비는 의미가 있다. 건축 재료에 있어서도 붉은 빛이 나는 황토를 사용하였고, 새해가 되면 한해의 안녕을 빌고 재앙을 물리친다는 벽사기복의 의미에서 붉은 부적을 그려 붙였다. 목조건물에는 단청을 칠하여 건물의 보존과 장식은 물론 왕궁과 사찰의 위엄을 표현하였고, 그 밖에 민화, 무속화, 공예품 등에서도 색채는 벽사기복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²³⁾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의 색채 사용을 보면 단순한 색채 미가 우선이 아니라 색채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중요시 여기고, 그것이 삶의 여러 영역에 깊숙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양오행설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의 오방색은 종교적, 계절적, 방위적, 우주관적인 철학을 형성하였고, 우리 민족의 색채문화의 기반이 되었으며 의식세계를 대변해주는 중요한 문화로 자리 잡았다.

3) 오방색의 상징적 의미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黑)의 오방색이 의미하는 내용을 색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오방색의 상징성

색상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黑)
방위	동(東)	남(南)	중앙(中)	서(西)	북(北)
계절	춘(春)	하(夏)		추(秋)	동(冬)
풍수	청룡(靑龍)	주작(朱雀)		백호(白虎)	현무(玄武)
음양	양(陽)	양(陽)		음(陰)	음(陰)
의미	창조, 탄생, 생식	생명력	소생, 부활	조락, 쇠퇴	암흑

23) 안성일, 「한국 전통 건축 색채의 계승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2011, 28쪽.

‘푸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청색(靑色)은 방위로는 동(東)쪽을 뜻하며 계절로는 봄(春), 오행에서는 목(木), 풍수로는 청룡(靑龍)을 뜻한다. 청색은 태양이 솟고 광명을 주는 까닭으로 하늘과 무성한 식물 등을 상징하는 색이다. 봄의 색인 청색은 창조, 신생, 청정한 생명을 상징하며 양기가 왕성한 색이다. 양기(陽氣)는 기운을 말하는데 만물이 움직이거나 살아나려고 하는 기운을 뜻한다. 즉 만물이 생성되는 원천적인 힘이다. 아이가 출생하면 문전에 송죽(松竹)의 푸른가지를 꽂고, 금침의 잇색으로는 남색을 쓰며, 사주보는 홍색의 비단으로 하는 풍습이 이에 해당된다.²⁴⁾ 청색의 사용으로는 기운이 쇠퇴해 가거나 죽어가는 목숨을 살리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적색과 함께 사용하여 사된 것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는 벽사기복의 색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성과(成果)로는 발생에 속하며 인간의 선함(仁)을 관장하는 색이다. 인체의 간장, 눈, 신맛과 연결되어 있다.

붉다는 뜻의 적색(赤色)은 방위로는 남(南)쪽을 뜻하며 계절로는 여름(夏)에 해당한다. 오행에서는 화(火), 풍수로는朱雀(朱雀)를 뜻한다. 따듯한 남쪽을 뜻하고 있는 적색은 만물이 무성하고 양기(陽氣)가 왕성하여 태양, 불, 피 같이 생명력이 충만한 색이다. 사람들은 붉은색을 생명의 근원으로 믿어 신성, 신비, 두려움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또한 적색은 벽사의 가장 대표적인 색으로 천재지변, 병마, 액운, 맹수 등을 쫓는다는 의미로 강한 색채적 주술성을 가지고 있는 색이다. 적색의 사용은 무당이 굿을 할 때에 붉은 옷을 입고 악귀를 쫓아냈으며 아들을 낳으면 대문에 붉은 고추를 매달아 부정한 것의 출입을 막았다.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이마에 붉은 점을 찍기도 하였으며 동짓날 팔죽을 쑤어서 집안 곳곳에 뿌리는 풍습 또한 적색의 주술성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적색은 벽사의 가장 대표적인 색이다. 성과로는 성장에 속하며 인간의 예(禮)를 관장하며 인체에 있어서는 심장, 오관의 혀, 맛의 쓴맛에 해당한다.

오색의 중심색인 황색(黃色)은 방위로는 중앙(中)에 해당하며 계절로는 4계

24) 안소현, 「회화에 나타난 자연채색 표현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19쪽.

질 모두에 연관되어 있다. 오행으로는 토(土)를 의미하며 모든 것을 포용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땅을 상징한다. 우주의 중심에 해당하므로 오색 중 가장 고귀한 색으로 인식했다. 이에 따라 천하의 통치권자인 천자(天子)를 상징하는 색으로 다루어져, 나라의 최고 통치자인 임금만이 황색 옷을 입을 수 있었다.²⁵⁾ 황색은 관용과 인내, 과거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상징하며 오상(五常)에 따라 믿음을 관장하는 색이다. 황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사용된 용어로는 황관(黃冠:야인, 도사를 의미), 황량몽(黃梁夢: 덧없음을 의미), 황도(黃道:황제를 의미), 황면(黃面:노인을 의미) 황천(黃泉:저승을 의미) 등이 있다. 이와 같이 황색은 권위, 부귀, 풍요, 지혜를 상징하지만 덧없음, 늙음,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는 양면성이 있는 색이다.²⁶⁾ 또한 인간의 믿음(信)을 관장하고 조화를 대표하며 인체에서는 오장의 비장, 오관의 몸, 맛의 단맛에 해당한다.

흰색인 백색(白色)은 소(素), 지색(紙色)이라고도 하며 방위로는 서(西)쪽에 해당하고 계절로는 가을(秋)을 의미하며, 풍수로는 백호(白虎)를 뜻한다. 오행 중에는 금(金)에 해당되고 순결과 청렴 등을 상징한다. 흰색은 빛을 상징하여 태양을 숭배하는 민족은 모두 흰색을 신성하게 여겼다. 흰색은 우리민족을 ‘백의민족(白衣民族)’이라고 표현하듯이 우리민족의 심성과 기질에 부합되어 한민족을 대표하는 색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백색의 사용에 있어서 상중(喪中)에 입는 백의(白衣)는 사별(死別)을 뜻하기도 하지만 세속을 벗고 새로운 삶의 세계를 바라는 기원이 담겨 있다. 또한 용어의 상징성을 살펴보면 공백(空白)은 텅 빈 것을 말하고, 깨끗함을 나타내는 결백(潔白)과 걸출한 것을 의미하는 백미(白眉)그리고 백일몽(白日夢)은 현실이 될 수 없는 실현 불가능한 환상을 뜻하는 말로 사용된다. 이처럼 백색은 청렴, 결백, 청빈, 신성, 공허, 순수함, 불안 등을 상징한다. 백색은 인간의 의리(義)를 관장하고 각각 폐장, 코, 매운맛에 해당한다.

흑색(黑色)은 방위로는 북(北)쪽, 계절로는 겨울(冬)에 해당하며 오행으로는

25) 구미래, 앞의 책, 77쪽.

26) 안소현, 「회화에 나타난 자연채색 표현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21쪽.

수(水), 풍수로는 현무(玄武)를 뜻한다. 어둠을 상징하여 음에 속하고 무채색이라 종교를 뜻하여 승려 복식에 사용되었다. 승려복은 정신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유채색을 피하고 무채색인 흑색을 사용하였다. 흑색의 사용에는 갓, 떡, 숯 등이 있다. 한국의 갓 중에서 대표적인 흑립(黑笠)에 나타난 고결하고 엄격한 검정색은 선비의 기품이자 떡의 상징이었다. 또한 글씨가 오래되어도 변치 않는 먹빛은 선비의 지조를 의미하였다. 간장을 담글 때 넣는 숯은 더러운 것을 물리치고 주변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믿었고 아기가 태어난 집은 금줄을 문간에 걸고 숯을 끼우기도 하였다.²⁷⁾ 흑색에는 길한 의미가 많지만 저승사자가 입은 검은 옷은 죽음을 상징하며 흑심(黑心)이나 흑막(黑幕)처럼 음흉함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다. 성과로는 저장(貯藏)에 속하고, 인간의 지혜(知)를 관장하며 은밀하고 현묘함을 좋아한다. 인체에서는 신장, 오관의 귀, 맛에 있어 짠 맛에 해당한다.

2. 전통회화작품에 나타난 오방색

1) 고구려 고분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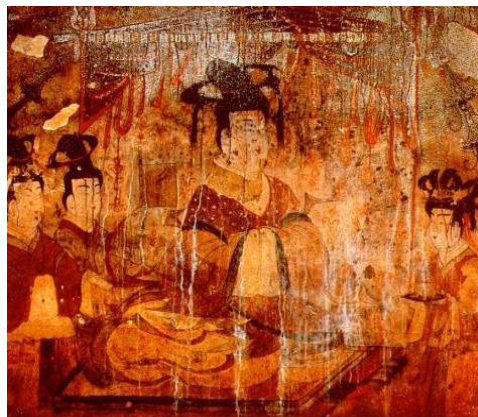
한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랜 미술은 고구려 고분벽화로서 종교적인 숭배물이나 장식에 관련되어 있는 채색화이다. 술거의 황룡사 벽화인 노송 그림과 종교적 제의(祭儀) 기능으로서의 인물화 역시 신화라고 일컬을 만큼 숙련된 색채에 의한 사실화였음을 『삼국사기』에서 전하고 있다.

그가 일찍이 황룡사 벽에 노송을 그린 적이 있었는데, 줄기가 가는 비늘 같았으며, 가지와 잎이 구불구불하여 까마귀, 술개, 제비, 참새 등이 멀리서 바라보고 날아들다가 변화의 벽에 이르러서는 벽에 부딪쳐서 떨어지곤 하였다. 세월이 오래되어 색깔이 변하자 절의 승려들이 단청으로 덧칠을 하였다. 그 후로 까마귀와 참새가 다시는 오지 않았다..... 또한 경주 분황사의 관음

27) 송금옥, 「패션색채계획을 위한 검정색의 색채 특성」,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0, 24-15쪽.

보살과 진주 단속사의 유마 화상이 모두 그가 그린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대대로 신화라고 말한다.²⁸⁾

고분벽화는 묘주의 생활상을 기록한 그림뿐만 아니라 경천설, 신성설에서 비롯한 천신, 지신, 그리고 민속신앙을 표현한 그림이 주류를 이루며, 장식적 요소와 건축적 요소도 표현함으로써 색채와 그 당시의 사상과 문화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안악 3호분은 4세기 후반 경 고구려의 고분벽화로 묘주의 생전에 위엄을 과시하는 행렬도, 외양간, 마구간, 부엌 등의 풍족한 생활상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묘주와 부인의 초상이 그려진 벽화가 있다.



<그림 7> 안악 3호분
묘주인상, 전실 서측 서벽, 황해남도 안악군
용순면 윤수리, 고구려시대 벽화.

<그림 8> 안악 3호분
묘주부인상, 전실 서측 남벽, 황해남도
안악군 용순면 윤수리, 고구려시대 벽화.

묘주는 검은 색 관모를 쓰고 있으며, 묘주의 옷은 검은 색에 푸른빛이도는 색이고, 의습 처리를 요철법²⁹⁾과 태서법으로 하여 자연스럽게 나타내었다. 옷깃은 황색과 백색으로 처리하였으며 옷의 주름처럼 보이기도 하고 무늬처럼 보이는 적색의 선들이 옷에 그어져있다. 주변 인물들의 옷은 그리 화

28) 이인숙, 「한국의 전통적 미의식과 오방색의 관계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33쪽.
29) 동양회화에서 입체감을 나타내기 위하여 먹이나 채색을 써서 명암의 단계를 번지듯 점진적으로 나타내는 기법. 서방의 지중해 지역에서 유래되어 북인도와 중앙아시아 등을 거쳐 극동으로 전래되었다 하여 ‘태서법(泰西法)’이라고도 한다.

러하지 않은 황색과 백색으로 채색되어있다. 인물들은 신분상의 차이 때문에 크기에 차이를 두었고 사물을 형상함에 있어 사물의 대소, 공간처리와 원근 및 명암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처리하였다.³⁰⁾ <그림 7>에서 묘주부인의 초상에서는 주인공들 뒤에 연꽃 장식, 수술 장식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불교 관련제재가 등장하여 생활 풍속계 벽화를 성립시킨 재래의 계세적 내세관이 변화 내지 변형될 것을 예고한다.³¹⁾ 《묘주부인상》은 《묘주인상》보다 적색의 명도가 더 낮아 더욱 차분한 느낌이다. 묘주부인은 복잡하게 높이 틀어 올린 머리를 하고 있고 금은보석의 머리핀을 꽂았다. 의복은 황색과 백색, 녹색이 들어간 넓은 소매의 옷을 입고 있으며, 황색과 흰색의 옷깃과 백색의 점무늬가 있는 적갈색의 옷을 입고 있다. 부인의 뒤에 보좌하며 서있는 여인들의 옷은 각각 적색과 황색으로 칠해져서 관자에게서 멀어짐에 따라 백-적-황의 순서로 채색을 하는 고대의 설채법을 보이고 있다.³²⁾



<그림 9> 안악 3호분
부월수, 전실 남벽 동쪽 구석 하단,
황해남도 안악군 용순면 윤수리,
고구려시대 벽화.

<그림 10> 안악 3호분
행렬도, 회랑 동벽 모사, 황해남도
안악군 용순면 윤수리, 고구려시대 벽화.

30) 최무장, 임연철, 『고구려 고분벽화』, 신서원, 121쪽.
31)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 서울대학교 출판부, 151쪽.
32) 안휘준, 『한국 회화사』, 일지사, 1984, 33쪽.



<그림 11> 안악 3호분
부엌, 전실 동쪽 곁간 동벽, 황해남도
안악군 용순면 윤수리, 고구려시대 벽화.



<그림 12> 안악 3호분
차고, 전실 동쪽 곁간 동벽, 황해남도
안악군 용순면 윤수리, 고구려시대 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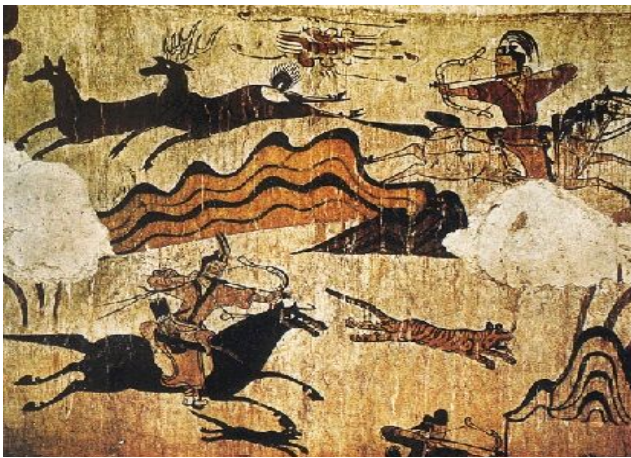
안악 3호분 동벽에 있는 부엌의 그림을 보면 지붕과 벽면이 분리된 듯 형태가 평면적이고, 뒤로 갈수록 더 넓어지는 원근감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모습이지만 색채 면에서 보면 백색의 벽면과 검은색의 지붕에 처마 끝은 붉은 점이 찍혀있고, 요리하는 사람이 청결한 백색 옷을 입고 청록색의 큰 대야에 정성스럽게 요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불을 상징하는 양의 색인 적색으로 불을 표현하여 색의 상징성을 조화롭게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5세기를 전후한 고구려의 고분인 무용총을 통해서도 색채미를 살펴 볼 수 있다. 《무용도》에서는 오정색과 오간색의 강한 대비와 조화를 색채의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인들은 통이 큰 황색바지와 소매가 긴 옷을 입고 백색의 신발을 신고, 검은 색 띠가 둘러진 홍색의 치마, 저고리, 바지를 입고 있다. 검은 점이 있는 적색 계열의 옷과 적색 계열의 점이 찍힌 백색 옷을 사용함으로써 색의 변화로 인한 율동감을 주고 있다.³³⁾

33) 조영실, 「음양오행설을 통한 한국적 색채 미감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6쪽.



<그림 13> 무용도
5세기경, 널방 서벽, 중국
둥베이 지린성 지안현 퉁거우



<그림 14> 수렵도
5세기경, 널방 서벽, 중국
둥베이 지린성 지안현 퉁거우

《수렵도》는 근경의 산은 백색, 중경의 산은 적색, 후경은 황색으로 표현하여 설채법을 사용하고 있다. 수렵도에서는 대체로 적갈색과 황색, 흑색, 황갈색의 밝은 색조를 띄고 있는데 벽사를 상징하는 적색을 강조하고, 피를 상징하는 적색의 사용으로 많은 동물들을 잡을 수 있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그려졌을 것이다.

2) 고려불화

불화의 특색을 살펴보면 군청색계, 황토색계의 비단바탕에 주사, 석록, 석청 안료의 주, 녹청, 군청의 삼색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흰색 및 금니의 안료를 사용하여 화사하면서도 은은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나타낸다.



<그림 15> 필자미상 《관경변상서품》
견본채색, 113.2x150.5cm,
일본 서복사 소장.



<그림 16> 필자미상,
《아미타여래도》, 비단에 채색,
1286, 105x203.5cm,
일본 시마즈가 소장.

《관경변상서품》과 《아미타여래도》에서도 고려불화의 주된 색채가 주(朱)와 금색임을 알 수 가 있다. 아미타여래상의 가사는 붉은색으로 전면을 칠하고 있으며, 대의와 치마에는 녹청, 군청을 사용하였다. 지장보살, 수월관음도 또한 치마의 바탕색은 모두 붉은색을 사용하였다. 화려함을 더해주는 요소의 금니는 모든 윤곽선, 옷 주름, 각종문양 등의 채색부분의 넓이에 따라, 색상에 따라 선의 굵기를 미묘하게 달리 사용하여 작품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림 17> 지장보살도
비단에 채색, 239.4x130cm, 고려시대,
일본 가마쿠라시 엔가쿠사 소장.



<그림 18> 수월관음도
견본채색, 1310년경,
227.9x125.8cm, 일본 교토 대덕사
소장.

붉은색은 고대부터 귀한 분, 최고의 신을 나타내는데 쓰인 색으로 불화에 서는 신성하고 숭고한 의미를 지닌다. 금색은 부처의 절대적인 존재를 타나 내기 위하여 사용한 색으로 부처의 진리와 지혜라는 무한한 빛을 상징한다. 백색은 연꽃과의 조화를 이루며 하늘의 의미와 함께 깨끗하고 순수한 존재임을 나타낸다. 황색은 왕족과 같음을 의미하며, 《지장보살도》에 나타난 흑색은 명부의 의미를 담고 있다.³⁴⁾ 무늬들을 살펴보면 각종 식물 문양들이 그려져 있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데 이들 문양은 고려불화의 특색을 돋보이게 하는 고려 고유의 것들이다. 《수월관음도》는 붉은 바탕의 가사에 그려진 노란 원형의 문양이 옷의 주름에 관계없이 둥근 모습을 유지하

34) 최몽룡, 『한국미술의 자생성』, 한길아트, 1999, 161~163쪽.

고 있어 도식적인 느낌을 주며 독특한 문양적 효과가 크다. 투명한 사라에 의한 옷자락의 아름다움도 이웃 나라의 불교회화와는 다른 고려불화의 특색이다.³⁵⁾ 이처럼 고려불화에서도 한국적 색채가 짙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색채미감은 이 후에 조선시대의 화조영모도, 십장생도, 풍속도, 책가도 등 민화에서도 그 빛을 발하며 전통적 색채의식이 이어져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민화

민화의 개념은 감상화이기 보다는 장식화이며 회화이면서도 정통회화에 비해 생활미술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민화는 우리 선조들이 제작하고 향유한 전통문화의 뚜렷한 한 ‘장르’임에 분명하며 우리 전통문화의 어느 분야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민화의 소재들은 기복축사(祈福逐邪), 벽사진경(辟邪進慶), 권선징악(勸善懲惡), 종교와 신앙 그리고 일상의 풍속 등과 관련한 소재를 주로 다루고 있다.³⁶⁾ 한국 민화의 가장 큰 특징은 색채인데 민화의 색상은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黑)의 다섯 가지 조화와 변화로 본 무교와 오행사상 등에서 유래되었으며, 민화의 기법은 전통회화 기법에 얽매이지 않은 구도와 원근법이 자유스러운 것이 특징이고, 사물의 존재 양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정해진다.³⁷⁾ 민화의 미의식은 무엇을 어떻게 잘 그리는가 보다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의 원리에 따른 소재의 조화와 색의 조화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동물과 동물, 식물과 식물, 혹은 동물과 식물은 이상적인 우주원리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그림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심리적인 작용을 하게 하는 일종의 조형주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³⁸⁾

35) 안휘준, 『한국 회화사 연구』, 시공사, 2000, 272~273쪽.

36) 안휘준, 위의 책, 시공사, 2004, 328, 33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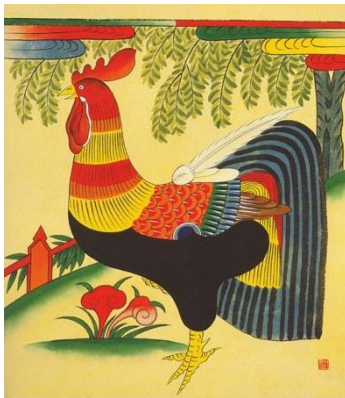
37) 허균, 『허균의 우리민화 읽기』, 북폴리오, 2006, 45쪽.

38) 박용숙, 『한국미학의 사기』, 열화당, 1998, 412쪽.

화조도는 민화 가운데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인간의 통과의례(通過儀禮), 인륜대사(人倫大事), 생활공간을 채우며 부귀영화와 자손번창, 수복강령 등의 현실적인 가치와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어 온 집단관념이 반영된 것으로 화조도에 등장하는 암수 새 한 쌍을 표현하여 부부애를 상징하고 부부화합을 뜻하며, 벌과 나비, 꽃 등으로 음양화음을 나타냈다.³⁹⁾



<그림 19> 필자 미상, 화조도 8폭 병풍
지분채색, 110.9x31.3cm, 19세기경, 일본 고려미술관 소장.



<그림 20> 공계(公鷄)
한지에 수간분채, 39x45cm.



<그림 21> 황계도(黃鷄圖)
한지에 채색, 19세기초, 112x327cm,
에밀레 박물관 소장.

39) 김영주, 『한국미술사』, 나남출판사, 1997, 318쪽.

《공계公鷄》에서 적(赤), 청(靑), 황(黃), 백(白), 흑(黑)의 다섯 가지 색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입신출세와 부귀공명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림이다. 수탉이 운다는 것을 뜻하는 공계는 公(공)과 功(공), 운다는 鳴(명)과 名(명)의 음이 같은데서 착안하여 부귀공명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숫컷에는 강인함과 양(陽)의 표현으로 부리나 날개, 꼬리 등에 강한 색채대비가 나타나 강한 인상을 받게 한다.

《황계도黃鷄圖》에서는 중앙, 중심을 뜻하는 황색을 띤 수탉이 천지사방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음양오행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황계도黃鷄圖》는 풍류와 부부금슬을 좋게 해준다는 상징의 하나로 새벽을 알리는 길조를 뜻하기도 한다. 화려하고 장식적인 느낌이 강하며 《황계도黃鷄圖》에 그려진 닭, 꽃, 바위 등은 부귀와 장수, 벼슬의 승진, 남녀화합 및 다남(多男)을 의미하는 그림이다.



<그림 22> 십장생도

필자 미상, 비단에 채색, 151.0x370.7cm, 19세기, 삼성리움미술관 소장.

《십장생도》는 세화(歲華)를 대표하는 작품이고 새해를 축하하고 한 해 동안 액운 대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하는 뜻을 담아 정초(正初)에 왕이 신하들에게 나누어주던 그림이다. 세화를 주는 풍속은 고려시대부터 세시풍속의 하나로 행해졌는데 벽사(辟邪)와 진경(進慶)을 기원하는 마

음에서 시작되었으며 나쁜 일은 막아주고 좋은 일만 생기게 해 달라는 뜻이다. 십장생(十長生)은 불로장생(不老長生)하고자 하는 인간의 소망을 나타낸 그림이다. 장수를 상징하는 열 가지 사물로 해, 구름, 산, 바위, 물, 학, 사슴, 거북, 소나무, 영지가 대표적이다. 색채에 있어서는 새해 아침에 떠오르는 붉은 태양과 그것을 감싼 오색(五色)의 서운(瑞雲), 그리고 사시사철 푸르른 소나무와 붉은 빛의 소나무는 강인함을 표현하고 있는 동시에 청색의 바위산과 대조를 이루면서 화려한 색채감과 장식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3> 모란도
필자미상, 종이에 채색, 19세기,
각 174x47.5cm, 호암미술관
소장.

《모란도》는 꽃 중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모란을 소재로 한 그림으로 상징적인 면이 크게 부각되는 그림이다. 본래 궁궐에서 상징적 의식화로 쓰이던 것이 저변화 되어 민간에서 유행한 것으로 제례용이나 혼례용으로 사용되는 일이 많았다. 모란은 부귀의 상징이고, 괴석은 음양오행의 남녀화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청색 괴석은 남근을 상징하고, 구멍이 뚫린 적색 괴석은 여성의 성기를 상징하고 있다. 화면 가득히 꽃잎이나 잎이 크고 풍부하게 그려지며 배경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꽃은 주로 주색이나 홍색의 적색계통, 황색이나 백색 또는 청색모란도 있다. 또한 모란도의 꽃은 무속이나 불교와 관련하여 상징화, 양식화 된 경우가 많다.⁴⁰⁾

40) 이우환, 『이조의 민화』, 열화당, 1977, 44~48쪽.



<그림 24> 문자도
지본채색, 각각 49x30cm,
홍익대학교박물관 소장.



<그림 25> 책가도
장한중, 비단에 채색,
195x361cm, 경기도
박물관 소장.



<그림 26> 책가도
이형록, 종이에 채색,
47x140cm, 호암미술
관 소장.

《문자도》는 조선조 민화를 대표하는 독특한 회화로 삼강오륜을 비롯한 당시의 유교적 윤리관이 반영되어 있다. ‘효(孝), 제(悌), 충(忠), 신(信), 예(禮), 의(儀), 염(廉), 치(恥)’의 여덟 문자를 회화해서 8폭 병풍에 담은 효제도가 가장 많이 남겨져 있다. 초기에는 문자와 관련 깊은 고사의 작은 그림을 문

자의 윤곽내부에 표현하였으나, 후기로 가면서 의미보다 회화성이 강조되어 먹의 문자 위에 화려한 색채의 동식물이 그려지거나 문양화 되면서 전체적으로 장식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다.

《책가도》는 기명화(器皿畵), 문방도(文房圖)로도 불리는데, 순우리말로 책거리 그림을 이르는 말로써, 책을 중심으로 나열하거나 혹은 여러 칸으로 만든 진열장 속에 배치해 놓은 서책과 골동품, 문방사우 외에도 선비들이 일상 생활에서 쓰는 화병과 꽃, 필통, 과일, 등잔, 도자기, 안경, 애완물 등을 그린 그림이다. 이형록의 책가도는 여러 칸으로 이루어진 서가와 그 속의 책 더미 및 집기들을 음영법(陰影法)을 구사하여 충실하게 표현한 그림으로 가장 오래되었고, 책 더미를 화려한 꽃이나 과일 등과 함께 마치 장식품처럼 바닥이나 책상 혹은 가구 위에 올려놓은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 그 다음 시기에 그려졌을 가능성이 크다.⁴¹⁾ 주로 사랑방에 놓였던 책가도는 학덕을 쌓기 위해 힘쓰는 문인들의 소망을 담고 있으며, 글 읽기를 즐기고 학문의 길을 추구하던 당시 유교사회 선비들의 일상적인 생활상을 유추해볼 수 있는 그림이다. 하지만 시대가 내려옴에 따라 학문숭상보다는 출세, 부귀, 다남(多男) 등 기복적인 성향이 두드러지며, 이러한 대표적인 상징물들을 한데 모아 그려 구성력과 색채감각이 풍부한 이조 특유의 장식용 정물화로 발달되었다.

3. 전통의 계승으로서 현대 회화작품에 나타난 오방색 분석

오방색은 우리 민족의 색채에 대한 정서를 잘 반영하고 있는 역사적 산물이다. 이러한 전통색채의 계승이 현대로 가면서 어떻게 이어져 오고 있는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 색채가 가지고 있는 미의식을 새롭게 재조명하며 오방색의 현대적 적용에 관심을 쏟는 작가와 작품들이 있다.

41) 안휘준, 앞의 책, 357쪽.

박생광은 전설적인 빛과 한국적 주제를 겸비한 작가로 알려져 있다. 그가 구사한 빛은 강렬한 원색적 색채 현상을 내재한 민족색을 상징한다.



<그림 27> 무속
박생광, 화선지에 채색, 먹, 136x132.5cm,
1985,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그림 28> 무당
박생광, 화선지에 채색, 130x70cm,
1981,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박생광의 작품에 주로 사용된 오색과 간색을 중심으로 각 색들이 지니고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적색과 청색, 녹색, 황색이 어우러져 나타나 색 자체의 주목성이 높다. 무당이 입은 화려한 색동은 음양오행에 따른 다섯 가지 색을 사용하여 오행을 두루 갖춤으로써 나쁜 기운을 막는 상징적 의미이기도 하다. 백색은 전통적인 의미의 표현보다는 강렬한 색채 구성의 한 요소로 유채색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오색과 간색의 조화가 무당의 춤사위를 더욱 역동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박생광은 면과 면 사이 또는 형태의 둘레에 굵은 선을 만드는 방식을 추구하였다. 그의 윤곽선은 사물의 형태적인 경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면속에 가득 채워진 색채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한 틀로서 사용되고 있다.⁴²⁾ 전통의 새로운 해석과 함께 현대적 시방식(視方式)의 조형양식을 보이고 있는 <그림 29>민경갑의 작품을 통해서도 전통

42) 박용숙, 『한국화 감상법』, 대원사, 2001, 98쪽.

색채의미를 느낄 수 있다.



<그림 29> 산울림 95-5

민경갑, 화선지에 수묵채색, 210x575cm, 1995,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민경갑의 작품은 한지와 먹과 채색이 함께 어우러져 응집과 확산의 자율 운동 등의 변집 효과를 창출해내면서 강렬한 발목을 바탕으로 한국화의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작가이다. 산의 모습이 진한 채색으로 인한 색의 대비를 통해 평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대상을 극도로 단순화 시켰으며 적색과 청색, 녹색의 대비를 통해 평면적인 산의 느낌을 강화하였고 산이라는 소재를 오방색의 색감과 함께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였다.



<그림 30> 원형상-그밖에

이중상, 동유화, 75x75cm, 1994.

일랑 미술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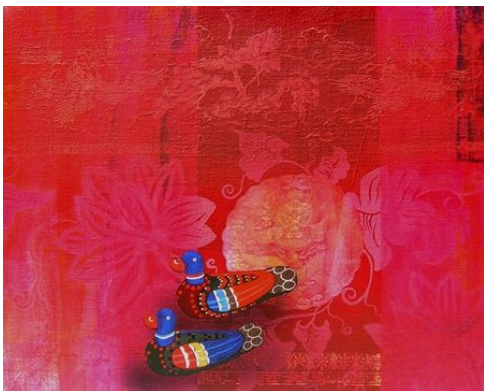


<그림 31> 원형상-흙에서

이중상, 동유화, 57x57cm, 1990,

일랑 미술관 소장.

이종상의 작품은 한민족의 사상적 얼을 바탕으로 현대 한국회화의 자생력을 찾기 위해 한민족의 근원 형상을 표출하고 있다. 그 가운데 원형상 작업은 재료의 발굴에서 뿐만 아니라 특히 그의 회화에 조형성의 완결, 한국적 추상이라 불릴만한 한국화의 또 다른 지평을 열어 보였다. 그는 색채의 혼합, 선의 기능과 구성의 힘, 공간의 배치, 형태의 완벽한 조화 등으로 성숙된 원형상의 세계를 회화의 가치로까지 상승시켰다. 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오방색의 상징적 의미는 변하지 않는 믿음과 신뢰, 군왕을 상징하며 대지를 나타내는 황색, 여름과 봄 그리고 난초와 예절을 의미하는 적색, 겨울, 물, 지혜를 상징하는 북쪽의 흑색, 봄과 어짐을 나타내는 청색, 가을과 정의를 의미하는 서쪽의 백색 색채들이 그의 원형상을 형성하는데 기본이 되어왔다.⁴³⁾ 이종상은 오방색의 화사한 색채로 독특한 화면을 구사하며 다양한 색채 대비를 통해 그 속에 내재하는 정신성을 강조하는 작품을 추구하였다.



<그림 32> Go into the scent
엄옥경, mixed media, 72.7x60.6cm,
2005.



<그림 33> Go into the scent
엄옥경, mixed media, 72.7x60.6cm,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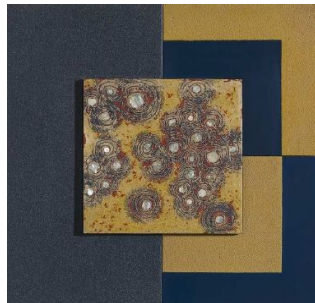
오방색과 민화를 차용한 회화를 연구한 엄옥경의 작품을 통해서도 전통색채미를 찾아볼 수 있다. 엄옥경의 작품에서 화면의 구도는 민화와 같이 원근법을 무시하고 있으며 주로 나열형과 대칭형 구도를 쓰고 있다. 또한 형태의 외곽은 선묘로 표현하였고 명암이 배재되어있는 평면성의 원리를 따르고 있

43) 김종근, 네이버캐스트 [한국미술 산책-타오르는 용광로 이종상] 참조.

다. 이는 민화가 취하는 구도와 평면적 효과를 차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색채는 오방색으로부터 나온 강렬한 원색의 색상대비를 사용하여 같거나 유사한 형태를 반복하기도 하는데 이는 평면성을 강조하여 장식적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오방색의 원색을 사용한 것은 사실적인 색깔 표현보다 본능적인 직감과 경험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작가의 주관적인 색의 가치를 추구하려는 의도 속에 한국의 색조로서 변화되어 조화를 나타내고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엄옥경의 작품에 등장하는 색채는 음양오행에 영향을 받은 오방색의 상징성을 중심으로 나타나있으며 이것을 변형, 조화시킨 작품이라 할 수 있다.⁴⁴⁾ 김득환의 작품을 통해서도 오방색의 색채미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림 34> 합(合) I
김득환, 목심,토분,복분,채
칠, 400x400x22mm.



<그림 35> 합(合)II
김득환, 목심,교칠,목분,채
칠, 400x400x22mm.



<그림 36> 합(合)III
김득환, 목심,삼베,칠분,교
칠,채칠, 400x400x22mm.



<그림 37> 합(合)IV
김득환, 목심,칠분,채칠,
400x400x22mm.



<그림 38> 합(合)V
김득환, 목심,칠분,금분,난
각,채칠, 400x400x22mm.



<그림 39> 합(合)VI
김득환, 목심,삼베,채칠,
400x400x22mm.

44) 엄옥경, 「오방색과 민화를 차용한 회화 연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논문, 2006, 19,20쪽.

<그림 34>에서는 빛을 의미하는 백색과 무성한 생명력을 지닌 적색의 상징적 의미가 표현되었다. 김득환의 작품에서 나타난 문양은 매화의 사실적인 표현에서 벗어나 민화적인 표현으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게 투박한 선과 거친 질감으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 색채는 오방색 중 백색과 적색, 간색인 녹색으로 표현하였고 배경색의 백색과 적색은 생명력이 충만하여 만물을 창조하고 소생시키며 자연과 합일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림 36>작품은 채칠 오방색의 청색, 적색, 황색, 백색을 이용하여 조각보의 이미지를 재해석하여 표현하였다. 청색은 적색과 황색을 이끌고 조화를 담당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다. 문양은 단순화한 해바라기로 화면을 가득 채우고 해바라기 씨부분을 과장되게 표현하였다. 색채는 황색, 적색의 채칠로 좁은 면에 사용하여 밝고 경쾌함을 표현하고 가장 넓은 부분을 청색으로 채칠하여 전체적으로 안정감과 질서를 유지한 것이 돋보인다. 조각보를 연상시키는 작품으로 한국의 전통색인 오방색의 이미지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⁴⁵⁾

지금까지 본 한국의 전통색채를 활용한 작품들을 통해 어떻게 전통을 새로운 표현기법과 색채, 조형으로 차용하며 오방색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가 있었다. 위의 작품들을 볼 때에 현대 작가들의 노력은 전통 색채의 계승과 함께 오늘날의 새로운 양식으로 변환될 때 전통색채의 미감을 현대적 미의식으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45) 김득환, 「오방색이 지닌 상징적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옷칠 작품 연구」, 명지대학교 선업대학원 석사논문, 2008, 36,40쪽.

3.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오방색 인지도 조사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전통색채인 오방색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1) 연구 방법

① 연구 대상 및 시기

설문조사의 대상은 서울 동대문구에 소재한 전동중학교 3학년 3반, 5반, 6반, 7반 총 107명을 대상으로 2012년 10월 18일, 학생조회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② 조사 방법

전통색채인 오방색에 대해 선다형의 문항과 서술형식의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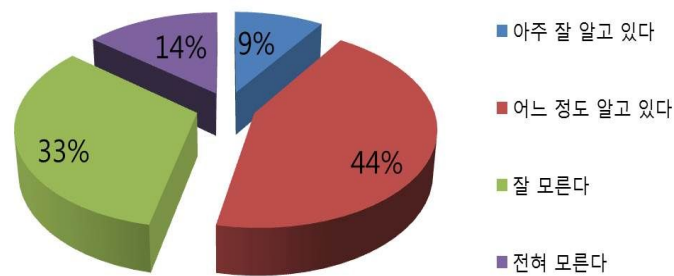
③ 분석 방법

선다형에서는 각 항목별로 전통색채인 오방색의 인지도를 조사하여 백분율로 처리하였고, 데이터 결과를 원형 차트로 표시하였다. 서술형식의 문항에 대한 답은 표로 만들어 나열하였다.

2) 항목별 내용분석

<표 14> 오방색 인지도 조사 (설문지-문항 1)

1문항	한국의 전통색채인 오방색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내용	반응 (명)	비율(%)
①	아주 잘 알고 있다	10명	9%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7명	44%
③	잘 모른다	35명	33%
④	전혀 모른다	15명	14%
무응답	무응답	0명	0%
계		107명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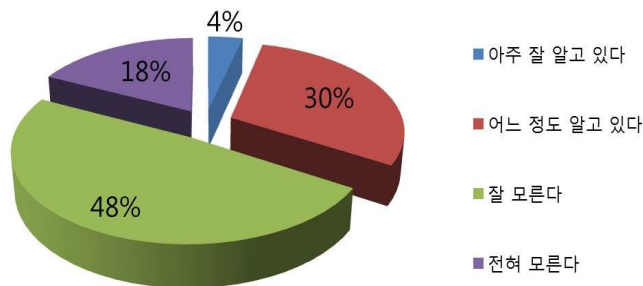


한국의 전통색채인 오방색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44%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대답하였고 9%는 ‘아주 잘 알고 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 결과에서 볼 때 학생들이 오방색에 대해 여러 통로를 통해 어느 정도 들어보고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33%의 학생들은 ‘잘 모른다’는 의견이었고 ‘전혀 모른다’의 의견이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많은 학생들이 오방색의 이름, 개념, 의미에 대해서 접하지 못하거나 생소해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학생들이 전통회화를 감상할 때에 색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설문을 통하여 확인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전

통색채의 중심이 되는 오방색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통해 전통회화 감상을 보다 흥미 있고 쉽게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15> 오방색 인지도 조사 (설문지-문항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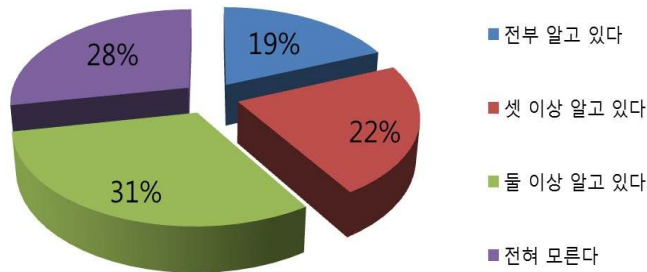
2문항	오방색의 근원을 알고 있나요?		
	내용	반응 (명)	비율(%)
①	아주 잘 알고 있다	4명	4%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2명	30%
③	잘 모른다	52명	48%
④	전혀 모른다	19명	18%
무응답	무응답	0명	0%
계		107명	100%



오방색의 근원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48%의 학생들이 ‘잘 모른다’라고 응답하였고, 18%는 ‘전혀 모른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30%, ‘아주 잘 알고 있다’라고 대답한 학생은 4%로 나타났다. 오방색의 근원을 잘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문항 1>에 서 나타난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오방색을 많이 들어보지 못하고 접하지 못한 이유에서부터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표 16> 오방색 인지도 조사 (설문지-문항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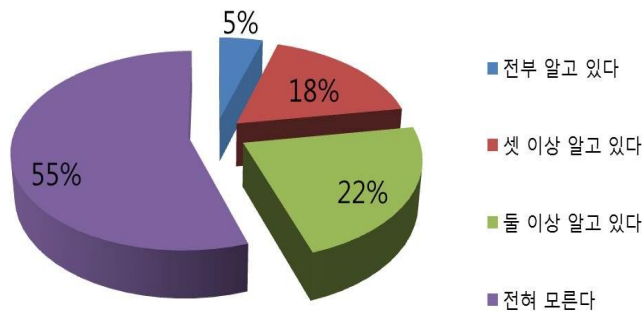
3문항	오방색의 다섯 가지 색에 대해 알고 있나요?		
	내용	반응 (명)	비율(%)
①	전부 알고 있다	20명	19%
②	셋 이상 알고 있다	24명	22%
③	둘 이상 알고 있다	33명	31%
④	전혀 모른다	30명	28%
무응답	무응답	0명	0%
계		107명	100%



오방색의 다섯 가지 색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31%가 '둘 이상 알고 있다'라고 답변하였고, '셋 이상 알고 있다'는 22%, '전부 알고 있다'는 19%, '전혀 모른다'는 28%를 나타내었다. 오방색의 다섯 가지 색에 대해 전부 알고 있는 학생들이 19%인 것으로 보아 오방색에 대해 들어보거나 오방색의 근원을 알고 있는 학생들은 대체로 이 다섯 가지 색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28%의 학생들이 오방색의 다섯 가지 색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전통색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을 보게 되었다.

<표 17> 오방색 인지도 조사 (설문지-문항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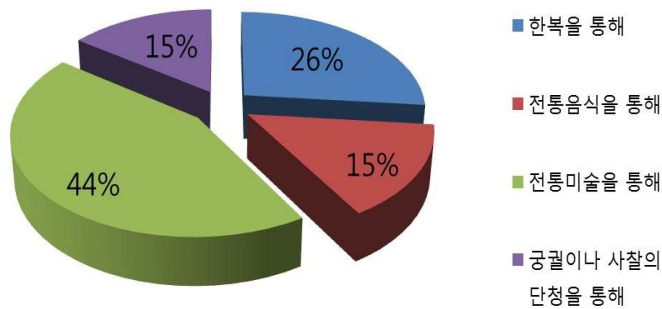
4문항	오방색의 다섯 가지 색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내용	반응 (명)	비율(%)
①	전부 알고 있다	5명	5%
②	셋 이상 알고 있다	19명	18%
③	둘 이상 알고 있다	24명	22%
④	전혀 모른다	59명	55%
무응답	무응답	0명	0%
계		107명	100%



오방색의 다섯 가지 색의 의미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는 질문에는 55%가 ‘전혀 모른다’라고 응답하였다. 전통색인 오방색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색들은 고유의 의미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에 따라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의식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전통회화 감상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오방색에 대한 개념과 의미, 상징성을 배우게 된다면 전통미술 및 전통문화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표 18> 오방색 인지도 조사 (설문지-문항5)

5문항	오방색을 알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내용	반응 (명)	비율(%)
①	한복을 통해	25명	26%
②	전통음식을 통해	14명	15%
③	전통미술을 통해	41명	44%
④	궁궐이나 사찰의 단청을 통해	14명	15%
무응답	무응답	0명	0%
계		107명	100%



오방색을 알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는 ‘44%가 전통미술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26%는 한복을 통해, 15%는 전통음식을 통해, 궁궐이나 사찰 등의 전통가옥의 단청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15%로 나타났다. 전통미술에서 색채가 갖는 시각적 영향력은 크다. 오방색의 다채로운 색깔 역시 전통미술을 통해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특징 중 하나이다. 많은 학생들이 전통미술을 통해 전통색채를 접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전통미술교육의 역할과 영향력이 크을 알 수 가 있다. 전통미술교육을 통해서 전통색채에 대한 이해와 계승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표 19> 오방색 인지도 조사 (설문지-문항6)

문항 6	'오방색'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1	꽃	11	우리나라 전통색
2	염색	12	반찬
3	다섯 가지 색	13	계절, 방향
4	노란색	14	태극기
5	아름다운 색	15	떡
6	한복	16	황제를 상징하는 노란색
7	동물들	17	전통의상
8	전통의상	18	사물놀이
9	비빔밥	19	전통한옥
10	부채	20	전통회화

3) 분석 결과

오방색 인지도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총 107명 중 44%가 오방색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그 중에 53%의 학생이 오방색의 다섯 가지 색 중 '두 가지 이상을 알고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그들 가운데 다섯 가지 색의 의미를 둘 이상 알고 있는 학생은 40%로 나타났다. 이는 오방색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대체로 색과 의미까지도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오방색에 대해 잘 모르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47%로 거의 반 정도가 오방색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을 볼 때 한국의 전통 색채에 대한 인식과 그 명칭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보았던 전통회화 감상에 대한 설문지<표 8>의 결과를 보면 전통회화 감상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영역으로 색채가 50%인 것을 볼 때 많은 학

생들이 색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관심에 비하여 전통회화에 표현된 우리의 전통색채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으로 보아 전통회화의 강한 특징 중 하나인 색채미를 단지 시각적 효과로써 감상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색채에 대한 관심만큼 오방색의 의미와 상징에 대해 알고 전통회화를 감상 한다면 전통회화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흥미 있게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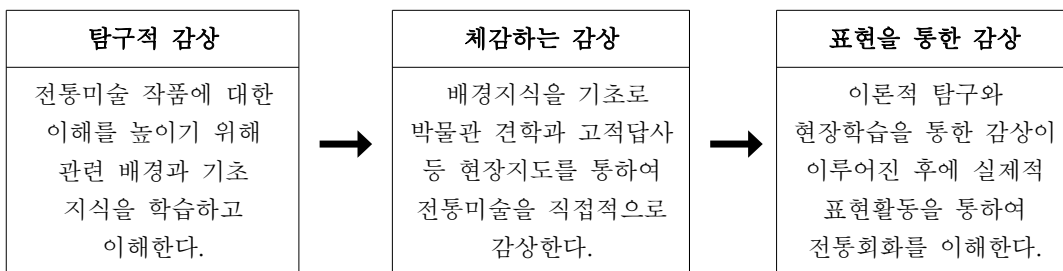
<표 16>의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은 44%의 학생들이 오방색을 알게 된 계기가 전통미술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우리의 전통색채와 전통미술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오방색을 알리고 계승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전통회화임을 볼 수가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오방색을 활용한 전통회화 감상 지도 방안을 계획하고자 한다. 오방색을 통하여 전통색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통회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전통회화의 올바른 이해와 현대적 변용을 통한 전통의 계승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V. 오방색을 통한 한국 전통회화 감상지도 방안

1. 오방색을 통한 한국 전통회화 감상교육 방법 제시

<표 20> 전통회화 감상교육 방안 내용



1) 탐구적 감상

전통회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제목이나 시대, 장소, 제작 목적, 세부적으로는 색채, 구도, 표현기법 등 작품의 다양한 배경 지식을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통미술 감상교육의 목적을 살펴보면 우리 조상들의 미의식과 독특한 우리만의 표현적 특성, 그리고 이에 따른 역사성을 계승하는 것과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역사, 문화, 예술을 느끼고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미술 작품을 직접적으로 감상하기에 앞서 선조들의 미의식과 전통적 세계관을 이해하는 학습을 통해서 효과적인 전통회화 감상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작품 감상에 있어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작품의 이미지를 통한 시각적 감상, 즉 감상자의 직관적인 반응에서 시작되는 감상이다. 감상

자가 작품을 대면할 때의 1차적인 느낌도 중요하지만 직관적 반응의 감상에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작품의 배경적 지식에 대한 탐구 활동을 통해 종합적인 감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오방색을 중심으로 한 전통회화 감상으로 오방색의 이론적 배경과 상징적 의미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탐구적 감상을 진행하였다.

2) 체감하는 감상

박물관이나 고궁, 문화유적 답사를 통하여 전통회화를 가까이에서 느끼고 이해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박물관과 문화유적 답사의 교육적 기능으로는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들과 자료를 이용하여 과거 및 현재의 문화유산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각 개인의 가치, 신념, 지식,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⁴⁶⁾ 또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전시된 작품을 비롯한 문화유산을 실물 그대로 감상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미술사를 가르치는데 효과적이며 자연과 문화, 역사가 조화된 분위기로 학생들의 미적, 정서적 교육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있다.⁴⁷⁾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책이나 미디어 등의 매체를 통해 작품을 접하는 것보다 박물관이나 문화유적 현장학습을 통해 직접 눈으로 보고 전통의 미를 느끼며 체감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청소년들에게는 전통미술을 더욱 친근하게 받아들이며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앞서 이루어진 탐구적 감상을 통해 전통회화의 조형과 색채요소 등 형성 원리와 배경을 이해하여 감상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흥미 있는 통합적인 감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

46) 이숙희, 「박물관 견학을 통한 전통미술 감상지도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12쪽.

47) 이은적, 류재만, 진성수, 김홍숙 『재미있는 미술감상 수업』, 예경, 2004, 285쪽.

체감하는 감상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이 견학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감상하고 학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감상 워크시트나 작품에 관련된 프린트 물을 준비하여 효과적인 감상 학습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후 지도를 통해 감상한 내용을 발표하고 이후에 직접 표현해봄으로써 효율적인 감상지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

3) 표현을 통한 감상

미술에서의 이해와 표현 그리고 감상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효과적인 미술교육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하나처럼 통합적으로 지도되어야 한다.⁴⁸⁾ 이전까지는 표현활동이 중심이 되어 사물을 실제같이 잘 표현하는 것에 치중되었고, 학생들 또한 그렇게 인식해왔다. 표현과 묘사를 위해 원근법을 배웠고, 명암이나 색채, 구도를 익혔다. 즉 표현을 위한 감상과 이해가 이루어진 것이다.

표현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표현을 위한 감상에 지나치게 치우치기 보다는 다양한 미술문화가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에 학생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감상능력을 길러주는 표현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직접 그리고, 채색하고, 표현하는 활동은 작품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색채의 변화와 표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 작품의 제작과정 속에 들어가면서 작품을 보다 깊이 있게 관찰하고, 감상 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는 통로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표현을 통한 감상수업으로 민화를 표현해봄으로써 우리의 전통 색채를 직접 느끼고 이해하며, 전통회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일 수 있는 표현수업을 계획하였다.

48) 이은적, 류재만, 전성수, 김홍숙, 앞의 책, 278쪽.

2. 본시 학습 지도안

오방색을 활용한 전통회화 감상 지도 계획

1) 단원 설정 이유

본 단원을 설정함에 있어서
첫째, 우리나라 전통회화의 색채개념을 통해 전통 미의식을 느낄 수 있다.
둘째, 오방색의 상징성을 이해하여 전통회화를 감상 할 수 있다.
셋째, 오방색을 활용하여 전통회화를 표현해 볼 수 있다.

2) 단원의 목표

첫째, 우리나라 전통회화의 색채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음양오행과 오방색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오방색의 상징을 이해하여 전통회화를 감상할 수 있다.
넷째, 오방색을 활용하여 민화를 표현할 수 있다.
다섯째, 표현한 작품을 다 같이 감상할 수 있다.

3) 단원의 학습 효과

첫째, 전통색채 개념을 이해하여 전통회화 감상의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둘째, 오방색의 근원과 개념, 상징성을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이론과 견학, 표현 활동을 통하여 전통적 색채미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
넷째,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느낀 점을 발표할 수 있다.

<표 21> 지도상의 학습효과 내용

차 시	지도상의 학습효과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방색의 근원과 의미, 상징성을 알 수 있다. ● 한국의 전통색채 미와 의식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 오방색을 통하여 전통회화를 감상할 수 있다.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회화를 직접 감상하고 관찰하며 전통의미를 느낄 수 있다. ● 워크시트 작성을 통하여 전통회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다. ● 관찰 및 감상을 통하여 전통회화인 민화를 스케치 할 수 있다.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화를 직접 표현하면서 전통의미를 느낄 수 있다. ● 민화의 현대적 변용을 통해 전통회화에 대한 흥미를 일으킬 수 있다. ● 친구들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며 발표할 수 있다.

4) 수업 지도 시 유의사항

- 강의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때에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학생들이 전통색채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있는지 잘 살핀다.
- 박물관을 견학 할 때에 효과적인 감상이 될 수 있도록 워크시트를 준비한다.
- 박물관을 견학 할 때에 공공장소와 관람예절에 대하여 미리 공지한다.
- 견학 이후 워크시트 작성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한다.
- 작품을 제작할 때에 유의사항을 공지하도록 한다.
- 사례를 보여준 이후, 창의적으로 민화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다른 친구들이 표현한 민화를 주의 깊게 감상하도록 지도한다.
- 실기가 끝난 후 주변을 깨끗이 정리 하도록 지도한다.

본시학습 지도안

1) 본시학습 지도안 - 총 3차시

<표 22> 1차시 본시학습지도안 - 이론, 감상

대단원	한국의 전통회화 이해	전통회화 깊이 알기	소단원	오방색을 활용한 전통회화	차시	1/3
학습 목표	1. 우리나라 전통회화의 색채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2. 음양오행과 오방색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3. 오방색의 상징을 이해하여 그림을 감상할 수 있다.					
준비물	교사		학생			
	PPT, 교과서,		교과서, 필기도구			
학습 유의 사항	1. 학습내용에 따라 적절한 시각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2. 강의식수업을 진행할 때 학생들의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3. 학생들이 오방색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적절한 질문을 통해 확인한다. 4. 질문에 자유롭게 발표하도록 유도한다.					
본시 학습 효과	1. 한국의 전통회화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다. 2. 우리 조상들의 의식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3. 우리 고유의 색채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학습 형태	강의식, 토의식		소요 시간	45분		
학습 단계	학습 내용	교수 학습활동				자료
		교사		학생		
	인사	▷ 인사, 출석 확인 한다.		▷ 수업태도 준비 ▷ 선생님께 인사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도 입 5 분</p>	<p>수업 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분위기를 환기 시킨다. ▷ 본시 수업내용을 안내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전 개 35 분</p>	<p>수업 목표 및 수업 내용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수업내용을 확인한다. ▷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 판서된 학습목표를 따라 읽는다. ▷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전통회화를 감상하는 수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전통색채 문화인 오방색에 대해 알아보고 오방색으로 표현된 전통회화 작품들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을 듣는다. ▷ 학습목표를 따라 읽는다. ▷ 설명을 듣는다. 	<p style="text-align: center;">PPT</p>
	<p>문제 제시 및 음양 오행 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방색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전통색채를 이해하고 전통회화를 보다 흥미 있게 감상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해요. ▷ 오방색의 근원에 대해 설명한다. <p>우리나라의 전통색채인 오방색(五方色)은 음양오행설에 근원을 두고 있어요.</p> <p>동양에는 예로부터 음양오행설이 존재했고 이 음양오행은 동양의 모든 사상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p> <p>동양에는 예로부터 음양오행설이 존재 했어요. 동양의 명상 수련자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물질이 되기 전의 상태인 오행의 기를 느끼고 세상을 오행으로 모두 구분해 놓았어요.</p> <p>음양설은 우주나 인간의 모든 현상이 음과 양의 요소가 확장하고 소멸함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론이에요. 그리고 오행설은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의 다섯 가지가 음양의 원리에 따라 행함으로써 우주의 만물이 생성하고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p> <p>오행에 오색이 따르고 방위와 계절이 따르는 이유는 색과 방위와 계절을 오행에 맞추어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중앙과 동서남북 사방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을 듣는다. 	

	<p>기본으로 삼아서 오방이 생성한다고 보고 있어요.</p>		
<p>오방색 설명</p>	<p>▷ 오방색의 다섯 가지 색에 대해 설명한다.</p>   <p>▷ 황색은 오행 중 토(土)에 해당되고, 중앙을 뜻하며 수도를 상징하는 색이에요. 우주의 중심이라 하여 가장 고귀한 색으로 중국에서는 부귀와 권위를 상징해요. 황색은 왕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하여 임금의 옷에 사용되었어요. 중국에서도 왕의 의복은 물론 궁의 지붕 기와도 황금색이었다고 해요.</p> <p>▷ 청색은 오행 중에 목(木)에 해당되고, 동쪽을 뜻하며 계절로는 만물을 생성하는 봄의 색이에요. 또한 태양의 솟음을 상징하는 해돋이, 밝음, 맑음 등과 연관된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p> <p>▷ 적색은 오행 중에 화(火)에 해당되고 남쪽을 뜻하며 계절로는 만물이 무성한 여름의 색</p>	<p>▷ 설명을 듣는다.</p> <p>▷ 설명을 듣는다.</p>	<p>PPT</p>

이며 생성과 창조, 열정과 애정, 적극성을 뜻하며 태양을 상징해요.



▷ 이 적색은 양의 기운을 가진 색으로 예전에는 궁궐이나 민가에서 귀신을 물리치는 역할을 했어요. 동짓날 팥죽을 먹거나 부적을 쓰고 여자 아이들이 손톱에 물을 들이는 일 또한 귀신을 쫓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 백색은 오행 중 금(金)에 해당하고 서쪽을 뜻하며 계절로는 만물이 풍부한 가을의 색이에요. 백은 신화적으로 출산과 자연의 길함을 상징해요. 또한 백색은 어떠한 색으로든 물들일 수 있으나 어떠한 색으로도 물들 수 없는 우리민족의 자존심과 곧은 의지의 마음을 나타내며 결백, 진실, 삶과 순결을 뜻해요.

▷ 설명을 듣는다.

PPT



▷ 흑색은 오행 중 수(水)에 해당되고 북쪽을 뜻하며 계절로는 만물이 소생하기 위한 겨울의 색이에요.

검은색은 밤, 공포, 불행, 파멸,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검은 상징이나 조기는 죽음을 의미해요. 그런가하면 법관의 법복이 검은색인 것은 정직과 명예의 표상으로 검은색은 인간의 지혜를 관장하는 색이기도 해요.

▷ 전통회화에서 오방색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본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사신도는 오방색을 나타내는 회화 중 하나예요. 사신도는 4방위를 맡은 신을 그린 그림으로 동쪽의 청룡, 서쪽의 백호, 남쪽의 주작, 북쪽의 현무 등의 방위신을 표시한 것이예요. 풍수지리설에서는 좌청룡, 우백호, 북현무, 남주작이라 하여 가장 중요한 방위 설정의 개념으로 삼고 있고, 예로부터 왕도(王道)를 정할 때 기본적인 요건이 되었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상을 모시는 묘자리 설정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해요.

군례의 예를 들면, 진영의 각 위치에 따라 군기(軍旗)로서 대오방기(大五方旗)를 사용했어요. 동쪽에는 청룡기 또는 청색기, 서쪽에는 백호기 또는 백색기, 중앙에는 황색기, 남쪽에는 주작기 또는 적색기, 북쪽에는 현무기 또는 흑색기를 세워 방위신의 보호를 받고자 하였고, 또한 나라의 예식인 가례 때에도 중앙에 황룡기(황색바탕에 황룡을 그림), 오른쪽에 백호기(흰 바탕에 흰 호랑이 그림)와 현무기(흑색 바탕에 현무 그림), 왼쪽에 청룡기(청색

▷ 사신도를 감상한다.

▷ 설명을 듣는다.

PPT

바탕에 청룡 그림)와 주작기(적색 바탕에 주작 그림) 그리고 홍문대기(紅門大旗(적색 바탕에 청룡 그림)를 사용하였어요.



▷ 단청에 나타난 오방색을 감상한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색채생활에 나타난 단청이라는 말은 넓은 의미로 색채로 그린 모든 그림을 일컫는 말이에요.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시대의 색채사용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오색은 성골이 왕궁에서만 사용하였고 진골계급부터는 채색으로 장식하지 못하였다고 해요. 하지만 단청의 장식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신라 전성기에는 귀족들의 집은 물론 서민들의 가옥에도 치장하여 나타났다고 해요.

▷ 고려불화에 나타난 오방색을 살펴본다.
단청에서 주로 사용되는 붉은색은 고대부터 귀한 분, 최고의 신을 나타내는데 쓰인 색으로 불화에서는 신성하고 숭고한 의미를 지니

▷ 단청에 나타난 오방색을 감상한다.

▷ 설명을 듣는다.

▷ 설명을 듣는다.

PPT

고 있어요, 금색은 부처의 절대적 존재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한 색으로 부처의 진리와 지혜라는 무한한 빛을 상징하는 색으로 쓰이고 있어요. 백색은 백색 연꽃과의 조화를 이루며 하늘의 의미와 함께 깨끗하고 순수한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 조선시대 민화에 나타난 오방색을 살펴본다. 민화에 대해 설명한다.



▷ 화조화에 대해 설명한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꽃이 인생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서 존귀하게 여겼으며, 오리는 영원히 끊기지 않는 깊은 인연을 상징하는 것이라 해서 매우 가까이 해왔어요. 화조화의 꽃나무와 새들은 각각 상징성을 띠고 있어요. 모란꽃은 부귀의 상징이고, 수선화는 충절, 원앙새는 부부의 금슬, 까치는 좋은 소식을 의미해요. 쌍쌍이 짝지은 새들은 부부간의 금슬이나 많은 아들딸을 낳아서 행복하고 평화스럽게

▷ 불화에 나타난 오방색을 감상한다.

▷ 설명을 듣는다.

▷ 화조화를 감상한다.

▷ 설명을 듣는다.

PPT

살자는 수복강령의 소망을 담고 있어요. 이렇게 화조도는 항상 짝을 이루어 표현함으로써, 춘의, 부귀다남, 강녕 등의 상징성을 띠고 생활주변을 장식해 왔어요. 장식적인 특징이 강하다 보니 풍부하고 화려한 색채로 표현하였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위해 차가운 색보다는 따뜻한 색을, 어두운 색 보다는 밝고 환한 아름다움을 구사하였어요.



▷ 황계도에 나타난 오방색에 대해 설명한다. 황계도에서는 중앙, 중심을 뜻하는 황색을 띤 수탉이 천지사방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음양오행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또한 황계도는 풍류와 부부금슬을 좋게 해 준다는 상징의 하나로 새벽을 알리는 길조를 뜻하기도 해요. 화려하고 장식적인 느낌이 강하고, 황계도에 그려진 닭, 꽃, 바위 등은 부귀와 장수, 벼슬의 승진, 남녀화합 및 다남(多男)을 의미하는 그림이에요.



▷ 황계도에 나타난 오방색을 감상한다.

▷ 설명을 듣는다.

PPT

▷ 십장생을 감상한다.

	<p>▷ 십장생도를 감상한다.</p> <p>십장생도에 그려진 동물들뿐만 아니라 소나무, 바위, 맑은 물, 태양 등 여기에 그려진 모든 것들은 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소나무는 절개와 불로장생을 상징하고, 붉은 태양, 다섯 가지 색의 서운, 수려한 산, 맑은 물,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 바위, 불로초, 거북, 학, 사슴 등은 세상의 기쁨이나 좋은 것을 한데 모아 아름답게 꾸민 구복적 장식화로 사용했어요. 십장생도에 주를 이루고 있는 청록색은 오방색의 청색과 함께 신생, 창조, 불멸, 희망을 상징하고 벽사기복의 색으로 간주되었어요.</p>  <p>▷ 모란도에 대해 설명한다.</p> <p>모란도는 꽃 중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모란을 소재로 한 그림으로 상징적인 면이 크게 부각되는 그림이에요. 모란은 부귀의 상징이고 피석은 음양오행의 남녀화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청색 피석은 남근을 상징하고, 구멍이 뚫린 적색 피석은 여성의 성기를 상징한다고 해요. 꽃은 주로 주색과 홍색의 적색계통, 황색이나 백색 또는 청색 모란으로 화면 가득히 크고 풍부하게 그려졌고, 배경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에요.</p> <p>▷ 책거리 그림에 대해 설명한다.</p> <p>책거리 그림은 보통 사물 외의 배경이 제외되어 그려졌어요. 또 투시도법이나 음영법과 같</p>	<p>▷ 모란도를 감상한다.</p> <p>▷ 설명을 듣는다.</p> <p>▷ 설명을 듣는다.</p>	<p>PPT</p>
--	--	---	------------

은 서양화법을 응용하기도 하였어요. 자연 형태를 해체하여 점, 선, 색의 기본적인 조형요소를 강조하였고 평면적 화면구성과 색채의 극단적 대비 등이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본래는 학문송배를 나타내는 것으로 서재 등의 장식에 사용되었으나 시대가 내려오며 따라 의미성을 희박해지고 조선조의 정물화로서 독창적인 구상력과 화려한 색채 감각이 뛰어난 회화체로 발달하게 되었어요.



▷ 문자도에 대해 설명한다.
문자도는 민화의 한 종류로 한문자와 그 의미를 형상화한 그림이에요. 글자의 의미와 관계가 있는 고사나 설화 등의 내용을 대표하는 상징물을 자획(字畵) 속에 그려 넣어 서체를 구성하는 그림으로 대개 병풍 그림으로 그려졌어요.



18세기 후반부터 시작하여 19세기에 이르러 민화와 함께 널리 유행하였고, 민간에서는 꽃

▷ 설명을 듣는다.

▷ 문자도를 감상한다.

▷ 설명을 듣는다.

PPT

		<p>글씨라고도 하며, 한자 문화권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조형예술로서 한자의 의미와 조형성을 함께 드러내면서 조화를 이룬 작품이에요. 문방도와 마찬가지로 문자도는 조선조 민화를 대표하는 독특한 회화로서 삼강오륜을 비롯한 당시의 유교적 윤리관이 반영되었어요.</p> <p>조선시대의 사회윤리로 자리 잡은 ‘효제충신 예의엄치’의 여덟 문자를 회화해서 8폭 병풍에 담은 효제도가 가장 많이 남겨져 있어요. 주로 화려한 색채의 동식물이 그려지거나 문양화 되면서 장식적인 양상을 띠고 있어요.</p> <p>지금까지 본 전통회화 작품에서 색채는 오행에 따른 색깔이나 상징적인 색깔을 사용하여 사실주의적 성격보다 상징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어요.</p>		PPT
정리 5 분	복습 및 차시 예고	▷ 질문을 통해 배운 것을 확인한다.	▷ 배운 것을 대답한다.	
		▷ 배운 내용을 정리한다.	▷ 배운 것을 복습한다.	
		▷ 준비물 및 다음 차시에 대해 설명한다. 다음시간에는 박물관 견학을 통해 전통회화를 직접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화스케치에 필요한 필기도구 챙겨주세요.	▷ 설명을 듣는다.	
	마무리 인사	▷ 인사한다.	▷ 인사한다.	

<표 23> 2차시 본시학습지도안 - 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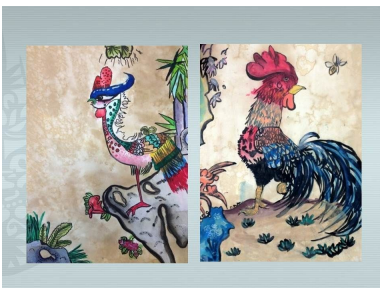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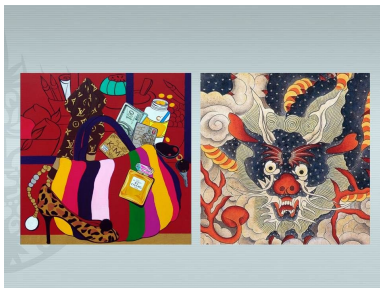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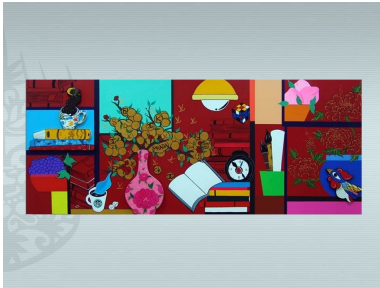
대단원		한국의 전통 회화 이해	전통회화 깊이 알기	소단원	전통회화 감상	차시	2/3
학습 목표		1. 전통미술을 관람하면서 한국적 색채미를 느낄 수 있다. 2. 전통회화 작품의 상세한 특징들을 눈으로 보고 느낀 점을 워크시트에 작성한다. 3. 전통회화 감상을 통하여 민화를 창의적으로 스케치 할 수 있다.					
준비물		교사		학생			
		출석열람표, 필기도구		필기도구, 작품 감상 워크시트			
학습 유의 사항		1. 관람 전에 학생들에게 박물관 관람 유의사항을 전달한다. 2. 워크시트를 작성하도록 하고 표현활동 때 그릴 민화를 반드시 스케치하도록 한다. 3. 관람 이후 모여서 감상에 대한 느낀 점을 발표하도록 한다. 4. 워크시트를 모아서 감상학습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본시학습 효과		1. 전통회화를 직접 감상하고 관찰하며 전통의 미를 느낄 수 있다. 2. 워크시트 작성을 통하여 전통회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다. 3. 관찰 및 감상을 통하여 전통회화인 민화를 스케치 할 수 있다.					
학습 형태		감상 수업		소요 시간	60분		
학습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자료	
		교사		학생			
도입 10분	인사	▷ 인사를 한다. 안녕하세요. ▷ 인원 및 출석을 확인한다. ▷ 관람 및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 인사를 한다! ▷ 출석확인예 대답한다. ▷ 관람 및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관람	▷ 워크시트지 작성을 안내한다.		▷ 설명을 듣는다.		워크시트지	

	지도 빛 문제 제시	▷ 관람 시 스케치에 대해 설명한다. ▷ 관람 이후 지도 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 설명을 듣는다. ▷ 설명을 듣는다.	
전 개 40 분	전통 회화 감상	▷ 관람을 지도한다. ▷ 워크시트지 작성을 지도한다. ▷ 민화 스케치를 지도한다.	▷ 관람을 한다. ▷ 워크시트지를 작성한다. ▷ 민화를 스케치 한다.	워크 시트지
정 리 10 분	관람 후 모임	▷ 관람 정리 지도를 한다. ▷ 인원을 점검한다.	▷ 인원을 확인한다.	
	느낀 점 발표	▷ 감상 후 느낀 점을 발표하도록 지도한다. ▷ 관람내용을 정리한다.	▷ 전통회화 감상과 스케치를 하면서 느낀 점을 발표한다. ▷ 관람내용을 정리한다.	
	마무 리	▷ 워크시트지를 모은다. ▷ 다음 차시 예고를 한다. ▷ 인사를 한다.	▷ 워크시트지를 제출한다. ▷ 다음 차시 예고를 듣는다. ▷ 인사를 한다.	

<표 24> 3차시 본시학습지도안 - 표현

대단원		한국의 전통 회화 이해	전통회화 깊이 알기	소단원	오방색을 활용한 민화 표현	차시	3/3
학습 목표		1. 전통회화인 민화를 표현할 수 있다. 2. 오방색의 표현을 통해 한국적 색채미를 이해할 수 있다. 3. 서로의 작품을 흥미와 관심을 갖고 감상할 수 있다. 4. 작품을 만들면서 느낀 점을 발표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준비물		교사		학생			
		PPT, 예시 자료		도화지, 붓, 물통, 포스터물감, 수채화물감, 스케치한 그림.			
학습 유의 사항		1. 교사는 다양한 민화자료를 학생들에게 보여준다. 2. 학생들이 민화를 창의적으로 잘 표현하는지 살핀다. 3. 표현활동을 할 때에 분위기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4. 다른 친구들이 만든 작품을 주의 깊게 감상하도록 지도한다. 5.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작품을 친구들에게 자유롭게 설명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본시 학습 효과		1. 민화를 직접 표현하면서 전통의 미를 느낄 수 있다. 2. 민화의 현대적 변용을 통해 전통회화에 대한 흥미를 일으킬 수 있다. 3. 친구들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며 발표할 수 있다.					
학습 형태		표현 수업		소요 시간	45분		
학습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자료	
		교사		학생			
도입 3분	인사 및 출석 확인	▷ 인사를 한다. ▷ 출석을 확인한다. ▷ 전시 수업내용을 확인한다.		▷ 인사를 한다. ▷ 대답을 한다. ▷ 전시 수업내용을 생각해 본다.			

	<p>학습 목표 제시</p>	<p>▷ 준비물을 확인한다. ▷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 표현활동에 대해 설명한다. 스케치해온 민화를 창의적으로 디자인한 후 도화지에 밑그림을 그리세요. 그런 다음 여러분이 디자인한 민화에 오방색을 활용하여 포스터 칼라 또는 수채화물감으로 채색을 해주세요. 실기가 다 끝난 후 마무리 하면서 친구들의 작품도 감상하고 자신의 작품을 표현하면서 느낀 점을 발표할거예요.</p>		<p>철판</p>
<p>전 개 37 분</p>	<p>예시 작품 제시</p>	<p>▷ 다양한 민화 종류 및 예시작품 제시한다.</p> 	<p>▷ 다양한 민화의 종류를 보고 스케치에 참고한다.</p>	<p>PPT</p>



	표현 활동	▷ 표현활동을 지도한다. 민화의 특징과 오방색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표현활동을 시작한다.	
	표현 활동 마무리	▷ 표현활동 마무리 지도를 한다.	▷ 실기를 마무리 한다.	
정 리 5 분	완성된 작품 감상	▷ 작품 감상 및 발표 지도를 한다. ▷ 주변정리 지도를 한다.	▷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자신의 작품을 발표한다. ▷ 주변을 정리한다.	완성 작품
	차시 안내 및 준비물	▷ 다음 차시 및 준비물 안내 다음 시간에는 산수화에 대해 감상하고 표현해 보도록 할 거예요. 준비물은 화선지, 먹, 붓, 베틀, 수채화물감 준비해 오세요.	▷ 설명을 듣는다.	칠판
	인사	▷ 인사를 한다.	▷ 인사를 한다.	

VI. 결론 및 제언

오늘날의 문화는 다양성을 띠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문화의 가치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각 나라의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회화는 한 국가의 문화 역량을 가늠하게 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데 좋은 지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전통회화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하나의 미술작품의 의미로써가 아니라 한 시대의 의식과 문화를 반영하고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며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 역량을 나타내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문화 선진국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과 안내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전통미술 감상교육은 학생들에게 자국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고 전통의 기반 위에 현대적 변용을 이룰 수 있는 보존과 계승의 문제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전통회화 감상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시하며 현재 전통회화 감상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동대문구 소재의 중학교 3학년, 총 1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전통회화 감상교육의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의 전통회화 감상에 있어서 색채를 중심으로 오방색의 의미와 상징성, 이를 통한 한국인의 의식세계를 이해하고, 전통회화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며, 전통회화의 특수성과 전통성의 가치를 인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통회화에서 한국인의 색채의식은 자연주의 사상과 함께 중국의 음양오행 사상에서 영향을 받은 오행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 정서에 알맞은 색채문화를 이루어 왔다. 오방색은 한국적인 미감의 상징적인 색채로 고구려 고분벽화나 고려 불화, 조선의 민화 등에서 잘 표현되었으며, 한국인의 색채 의식 속에 전통색으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전통회화에서 색채는 한국인의 미의식과 전

통회화의 특수성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방색이 갖는 상징성과 시대적 배경을 파악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민족이 표방하는 미의식을 이해하고 전통회화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수업지도안 제시하였다. 1차시에는 전통회화 감상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오방색의 배경과 상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탐구적 감상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은 교실에서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이미지 및 작품설명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2차시로는 국립중앙박물관 견학을 통해 전통회화를 직접 감상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체감하는 감상수업을 진행하였고, 다양한 전통회화를 감상하고 워크시트를 작성하여 효과적인 감상 수업이 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3차시에는 감상한 것을 표현함으로써 전통회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하는 감상 수업을 진행하였고, 학생들이 박물관에서 감상했던 민화를 토대로 오방색을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현대적인 민화를 표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감상지도 방안은 감상수업에 있어서 이해와 감상과 표현의 통합으로 작품의 본질적 측면과 그 가치를 이해하고 표현기법을 향상시키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회화 수업의 경우 감상과 표현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더 효과적인 감상과 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기존의 전통회화 수업은 전통회화를 모사하는 정도의 표현수업이 대부분이다. 전통회화의 경우 시대적 배경과 재료에 따른 기법이 특수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한 감상방법으로 충분히 작품을 이해한 후에 표현에 들어간다면 표현을 위한 감상과 감상을 위한 표현이 균형을 이루어 보다 효과적인 전통회화 감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화를 직접 관찰하고 민화의 현대적 변용과 함께 민화에 나타난 오방색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둘째, 첫 번째 제언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박물관과 연계된 감상수업의 활성화가 중요할 것이다. 효과적인 감상수업이 되기 위하여 미술교

사가 전통미술작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적지식과 교육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 철저한 준비 속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교사가 작품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감상방안을 연구해야 하지만 박물관 현장에서 작품에 대하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도슨트의 설명으로 감상수업이 이루어진다면 더 깊이 있는 감상과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감상의 주체가 되어 새로운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전통미술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전통회화의 현대적 변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통미술 교육에 있어서 전통의 보존과 계승은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전통회화가 한 시대의 의식과 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면서 현대에 와서 어떻게 이어지고 발전되고 있는가의 문제는 전통의 계승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통회화의 현대적인 변용에 대한 감상과 표현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전통색으로 자리 잡은 오방색을 중점으로 어떻게 하면 전통회화를 더 깊이 있게 흥미를 가지고 감상할 수 있을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통색채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상징성, 선조들의 의식세계에 대한 이해는 전통회화를 오방색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기회가 되었다. 본 연구가 전통을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지도 방안이 되길 기대한다.

현재 전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전통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미비하고 학교 수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전통미술 교육의 내용과 교수방법 또한 다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전통의 가치를 높이고 전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긍심을 길러줄 수 있는 다양한 전통회화 감상 방안이 연구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전통회화가 올바른 현대적 변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통회화 계승에 있어서도 교육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안휘준, 『한국 회화의 이해』, 시공사, 2007.
- 박휘락, 『미술감상과 미술비평 교육』, SIGONGART, 2003.
- 전성수, 『미술교육 이론의 탐색』, 예경, 2003.
- 구미래, 『韓國人의 상징세계』, 교보문고, 1993.
- 양계초, 『음양오행설의 연구』, 신지서원, 1993.
- 이재만, 『한국의 전통색』, 일진사, 2011.
- 하용득,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심리』, 명지출판사, 2001.
- 최무장, 임연철, 『고구려 고분벽화』, 신서원, 1990.
-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 안휘준, 『한국 회화사』, 일지사, 1984.
- 최몽룡, 『한국미술의 자생성』, 한길아트, 1999.
- 안휘준, 『한국 회화사 연구』, 시공사, 2000.
- 허 균, 『허균의 우리민화 읽기』, 북폴리오, 2006.
- 박용숙, 『한국미학의 사기』, 열화당, 1998.
- 김영주, 『한국미술사』, 나남출판사, 1997.
- 이우환, 『이조의 민화』, 열화당, 1977.
- 박용숙, 『한국화 감상법』, 대원사, 2001.
- 이은적, 류재만, 전성수, 김홍숙 『재미있는 미술감상 수업』, 예경, 2004.

<논문>

- 류희주, 「미술감상교육에서 대화 중심 교수-학습법이 미술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 강여진, 「전통회화의 이해를 위한 감상지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 김수옥, 「한국 미술에 나타난 음양오행에 의한 색채표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 박옥자, 「고구려 고분벽화의 사신도에 내재된 사신과 조형적 특징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안성일, 「한국 전통 건축 색채의 계승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 안소현, 「회화에 나타난 자연채색 표현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 안소현, 「회화에 나타난 자연채색 표현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 송금옥, 「패션색채계획을 위한 검정색의 색채 특성」,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0.
- 이인숙, 「한국의 전통적 미의식과 오방색의 관계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 조영실, 「음양오행설을 통한 한국적 색채 미감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엄옥경, 「오방색과 민화를 차용한 회화 연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2006.
- 김득환, 「오방색이 지닌 상징적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옷칠 작품 연구」, 명지대학교 선업대학원, 2008.
- 이숙희, 「박물관 견학을 통한 전통미술 감상지도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기타>

김종근, 네이버캐스트 [한국미술 산책-타오르는 용광로 이중상]
그림, 인터넷 사이트 <http://ltitest.com> 참조.

ABSTRACT

A Study of Teaching Plan on Korea's Traditional Painting using Traditional Color - Focusing on Five Colors -

Kim, Jin Young

Major in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Joeeun Lee

We which are living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multicultural society are living with naturally encountering and embracing various cultures through numerous media. In the fast-changing times, it is important that it helps the youth that represents such a diverse culture aware of the culture with the proper values, the identity and the discernment and have an attitude that accommodate that.

With reference to this, the education that appreciates the traditional art has a key part in having a proper aesthetic sense and accommodating the culture through understanding our emotions and thoughts and making our independence clear.

The education that the traditional art is not a boring and staid history for youth, makes them feel an important cultural heritage that understand the living and the sphere of consciousness of our people and preserve and inherit.

The aesthetic sense according to the religion, the thought and the historical backdrop is shown in the traditional paintings. Especially, in terms of the color with regard to the painting, it is considered the fact that used the colors for symbolic meanings on the basis of the folk belief and the Confucian thinking rather than the purpose to deliver visual images and feelings is different with the color usage for the western painting. From the dawn of long history to the modern times, it is considered that the role of the colors like how we feel the colors, how we evaluate them and how the colors act on the person's mind and affect has played an important part in terms of creating the cultures.

When it comes to our history, considering that on the ancient tomb mural of the era of Balhae and Goguryeo, Soo-ryub-do or Moo-yong-do drawn with a riot of color and Sa-sin-do of Baek-ho, Chung-ryong, Ju-jak and Hyun-mu had been founded, we could guess that the culture of color for our people had been built long before since the prehistoric age.

Our consciousness for the color was reflected in every respect of living as to the clothing, the food and the shelter due to using O-Bang Color grounded in the thought of Yin-Yang and the Five. And such a culture of color of O-Bang Color is playing a huge role in representing our tradition and the distinct beauty for Korea. Even though the effort that try to preserve and inherit should be carried out, as living in the period that gradually become modern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multiple cultures, we could see that the understanding, the attachment and the pride about the tradition of the youth is noticeably insufficient.

Hence, this thesis intends to examine the large context of the

traditional colors for our country and the traditional paintings with O-Bang Color that represents the sphere of consciousness as the center so that understand the traditional colors and could appreciate the traditional paintings more interestingly.

This study, with O-Bang Color as the center, mapped out the contents of study about the sentiment and guidance measure of Korean traditional painting that used the traditional colors.

The introduction of the first chapter suggested the object, the importance, the contents and the methods of the study for the sentiment and guidance measure of Korean traditional painting with O-Bang Color as the center.

The second chapter investigated through bibliographic data the necessity for the art sentiment education and the educational meaning and the approach method of art sentiment education.

The third chapter examined the necessity for the sentiment education of the traditional painting and the actual state for the sentiment education of the traditional painting through the survey and suggested the drawback for the sentiment education of the traditional painting according to that and the improving ways.

The fourth chapter looked into the concept of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theory as theoretical background for O-Bang Color and O-Bang Color that appeared in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theory and investigated the symbolic significance of O-Bang Color. Moreover, it examined how O-Bang Color had appeared in the traditional painting and the modern painting and looked into how it appears as the succession of the tradition in the modern culture.

The fifth chapter suggested the application methods that it understands and appreciates Korean traditional painting with what method by using O-Bang Color on the sentiment and guidance measure and suggested the guiding principle for efficient teaching-learning.

As the opportunity that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the sentiment education of traditional painting is once more recognized Through this study, the youth feels an interest in the traditional painting through understanding the traditional color consciousness and the symbolic significance of Korea and aware of the values of distinctiveness and traditionality for the traditional painting, I hope that this will become a guiding principle that can correctly establish the tradition.

(부록 1)

❁ 전통회화 감상에 대한 설문조사 ❁

() 학년 () 반

안녕하세요. <전통색채를 활용한 한국의 전통회화 감상지도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저의 논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답한 내용들은 연구 목적에만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12.10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 김진영

1. 전통회화 감상에 대한 흥미도는?

- ① 매우 재미있다 ② 재미있다 ③ 보통이다 ④ 전혀 재미없다

2. 전통회화 감상은 왜 하는가?

- ① 미적안목을 높이기 위해서 ② 교양을 쌓기 위해서
③ 문화의식을 느끼고 싶어서 ④ 그냥 수업시간에 해야 하므로

3. 전통회화 감상이 재미없는 이유는?

- ① 작품에 대해 잘 몰라서 ② 감상방법을 잘 몰라서
③ 감상문을 작성하기 싫어서 ④ 지루해서

4. 서양미술과 전통미술에 대한 흥미도 비교.

- ① 서양미술에 흥미가 있다 ② 전통미술에 흥미가 있다
③ 고루 흥미가 있다 ④ 둘 다 흥미 없다

5. 전통미술에서 가장 관심 있는 영역은?

- ① 건축 ② 조각 ③ 회화 ④ 공예

6. 전통회화의 감상경험은?

- ① 아주 많다 ② 많다 ③ 조금 있다 ④ 전혀 없다

7. 전통회화 감상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도.

- ① 매우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전혀 필요 없다

8. 전통회화를 감상 할 때 주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 ① 구도 ② 색채 ③ 재료 ④ 형태

9. 전통회화 감상수업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 ① 설명 ② 사진설명 ③ 동영상 ④ 박물관 or 미술관 견학

10. 어떤 감상법이 전통회화에 대한 이해와 도움을 줄 것 같습니까?

- ① 교사의 설명 ② 교과서 그림 ③ 영상자료 ④ 박물관or미술관 견학

11. 감상수업 시 가장 관심 있는 감상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교사의 설명 ② 영상 자료 ③ 직접 표현하기 ④ 박물관or미술관 견학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3)

작품 감상 워크시트

()학년 ()반 이름()

민화란 무엇일까?		
민화의 종류는?		
가장 인상 깊은 민화는? (스케치하기)	제목 :	재료 :
인상 깊게 보았던 민화의 표현 기법은 어떠한가요?	색채 및 선	구도
감상 후 느낀 점		